

“종교자유는 풍요의 원천...공개적 개선압박 중요”

VOA, 국제개발처/국제종교자유위의 ‘북한, 최악의 종교박해국’ 지적 보도

종교의 자유는 인권의 기반이자 풍요의 원천이라고 미국의 전, 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강조했다. 이들은 중국과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종교박해를 작시해서는 안 된다며 외부 정보유입과 공개적인 개선 압박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사만다 파워 미국국제개발처(USAID) 처장은 지난달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IRF Summit) 연설에서 “종교 자유와 관용에 대한 우리의 결의는 미국의 진정한 기반”이

라고 말했다.

파워 처장은 이런 믿을 때문에 미국은 “종교 자유 보호에 전념하고 나라 안팎에서 종교 자유신장에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 자유에 대한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일 뿐 아니라 “무한한 풍요의 원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North Korea Severely Punishes Religious Freedom).

각국이 종교 자유를 증진하고 종교적 소수집단을 보호할 때 민주주의는 더 안정적이 되고 지역사회는 더 평등하게 발전·번영하며,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는 더 보호받는 등 전반적인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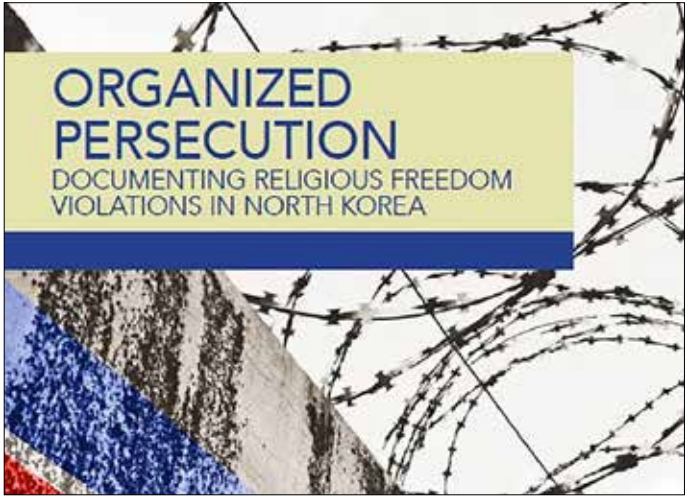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유엔대사를 지낸 파워 처장은 미국 여론조사 전문기구(퓨리서치)의 자료를 인용해 실제로 종교에 대한 규제와 적대가 줄어든 나라는 규제를 강화한 나라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종교 자유를 탄압하는 나라는 불안정과 갈등이 더 증가했다고 말했다.

파워 처장이 지적한 종교 탄압과 빈곤국의 대표적인 예가 북한이다.

국무부는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박해국 중 하나로 지목했고, 북한은 유엔이 계속 가장 가난한 저소득 국가군으로 분류할 정도로 수십 년째 만성적인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종교 자유를 실천하는 것보다 사회에 더 기본적인 권리는 없다”며 북한 등 권위주의 정부들을 지적했다.

정부들이 국민을 압제할 때 감옥의 벽 뒤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기본적 권리인 종교를



억압하는 것이며 중국이나 이란, 쿠바, 북한 같은 나라는 대놓고 신앙인들을 박해한다는 것이다.

폼페오 전 장관은 “국민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할 능력을 잃으면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을 지배할 것”이라며, 신장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대량학살 등 종교와 인권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대표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대니얼 네이들 미 국무부 종교자유국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제사회의 악성 행위자들(malign actors)이 신기술을 종교 탄압 등 압제의 도구로 남용하는 규모와 범위가 전례 없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나라의 당국자들은 개인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

을 추적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들이 “수집한 정보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들 국장은 “미국 정부는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기술의 남용과 가장 깊은 신앙 때문에 개인을 괴롭힘과 차별, 체포,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네이들 국장이 언급한 “정부가 정보 접근을 상당히 제한하는 완벽한 예가 북한”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이 한국 드라마와 라디오 등에 접근하거나 성경을 갖고 있으면 연좌제에 따라 3대의 가족이 8-12만 명이 수

용된 것으로 추산되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이런 상황은 미국 정부의 대북정보 접근증진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정보를 시장 활동의 생명줄로 의존하는 북한주민들이 이런 외부정보에 접근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인권 침해자들에게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며 역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박해받는 국가 주민들에게 외부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창의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지난달 18일 ‘조직적인 박해: 북한 내 종교자유 침해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정부기관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종교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민들의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에 북한 당국이 ‘극심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런 침해는 현재 진행형이며 지독하고, 조직적이라고 밝혔다.

〈3면으로 계속〉



중국 선전 위한 ‘자간오’를 경계하라!

BBC, 젊은 중국 민족주의자들의 SNS 통한 무분별 반서방 영상/주장 생산 상황 보도

안심시키는 미소를 가진 중국인 블로거 ‘구안무찬(Guanmuchan)’은 웨이보에서 친근한 인물처럼 보인다. 이 젊은 여성은 중국의 트위터같은 플랫폼에서 640만 명의 열렬한 팔로워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시사 문제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과 동영상상을 게시한다.

그러나 그의 브랜드의 귀여운 미학(그의 웨이보 페이지에는 숲에서 포즈를 취하는 소녀의 꿈꾸는 듯 한 그림이 있다)은 종종 그의 신랄한 여투와 배치된다. 최근 그의 게시물에서 유럽연합은 미국이 잡고 있는 ‘목줄을 맨 개’였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미국 텍사스 주의 코로나19 발병률 증가는 ‘미국인들이 현재 생물학적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고 있는 내전’의 증거였다(China: The patriotic ‘ziganwu’ bloggers who attack the West).

구안무찬은 ‘자간오’로 알려진 새로운 블로거 중 하나다. 그의 중국 소셜 미디어에서의 명성은 중국 민족주의의 강화와 불가분의 관계다.

그들의 이름은 국가 선전을 퍼뜨리기 위해 돈을 받는 악명 높은 ‘우마우당’과 관련돼 있다. 그러나 차이점은 자간오는 ‘무로’라는 점이다.

수만 명의 팬들이 공유하는 그들의 가학적인 게시물과 동영상

은 종종 서구 국가와 언론매체를 비판한다.

페미니즘, 인권, 다문화주의, 민주주의 등 중국사회를 ‘부패시키는’ 서구의 영향력으로 간주되는 문제들도 면밀히 조사된다.

대만, 홍콩 민주화 운동가와 같은 ‘분리주의’를 조장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활동가, 지식인 및 전문가도 종종 저격을 받는다.

〈3면으로 계속〉



시 론
최해근 목사



푸른초장
장성철 목사



교회음악이야기
윤임상 교수

14-15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cbookusa.com / chc@chcbookusa.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기독교 문화사역’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순삭성경 Hisfinger Media

순삭성경

좋은책 읽어주는 그레이스타임

“신린”가 중요한 4:30

싸움에서 이기려면 4:18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남자 4:27

No thank you, 이라오나 4:53

우리 식당 해나려 일을 맡아 주게 4:43

“말씀 나눔” 크리스마스 “성탄절”

재능구독

순삭성경

HIS FINGER media | kaps

좋아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사역부 히즈핑거는 기독교 콘텐츠제작, 기독교 굿즈제작 등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매문의, 광고문의, 사역문의는 info@chpress.net 혹은 718-886-440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인 칼럼 ●

노래할 이유 있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고등학교 채플 때 J 여교 한창단이 있었다. 그들은 짙고 노란 유니폼을 입고 율동을 곁들은 노래를 불렀다. 벌써 얼마 전인가, 그 당시로서는 과격적인 의상과 밝은 미소와 현란한 안무가 있어 눈이 호강했던-아, 채플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아야 했는데-기억이 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그 노래의 이런 가사다.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그의 곁에 있으면 노래할 이유 있네/ 밤낮으로 노래 부르리 온종일 즐거운 노래를/ 노래할 이유 있네 내 죄를 주가 씻었네/ 노래할 이유 있네 새 생명을 주셨네 노래할 이유 있네” 그들은 그렇게 확신하며 노래할 이유가 있다고 했지만 적어도 내게는 그렇지 않았다. 노래할 이유보다 탄식할 이유가 더 많았다. 건강도, 성격도, 도시락 반찬도 시원치 않았으니 흥겹게 노래할 이유가 그 무엇이었겠는가. 그 후 언젠가부터 나는 노래하며 산다.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성경에 보니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노래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알고 있고 또 보고 있기에 노래할 수 있었다. 믿음을 가진 자의 노래를 나도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하버드대학의 개혁을 주도했던 내이턴 M. 푸쉬 총장은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소를 이렇게 말했다. 흔들 수 있는 것발, 변하지 않는 신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며칠 후 교회 청년들의 수련회에 감사로 간다. 청년들이 수련회에서 전할 말씀의 본문과 제목을 부탁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냐고도 물었다. 두 곡을 같이 부르자고 했다. 그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였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서 있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부를 것이다. 그들이 부르자고 할 찬양도 같이 부를 것이다. 펜데믹의 광야 길이 계속되고 있지만 청년들과 함께 현실에 탄식하지 않고 불러야 할 이유가 있는 노래들을 함께 부를 것이다.

지난 주간 샌프란시스코에서 필자가 속한 교단의 한 모임이 있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작년과 올해 총회 임원들과 노회장들이 함께 모여 연석회의를 가졌던 자리이다. 찬양을 인도하신 목사님이 동부에서부터 개인의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오셔서 본인이 직접 연주도 하시고 찬양도 뜨겁게 이끄셨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힘든 이민 목회 현장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다. 그렇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였음을 함께 노래했다. 버스를 타고 함께 이동할 때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시간도 가졌다. 한 사람이 시작한 노래였는데 모두가 나지막이 따라 불렀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민 목회자들이 깊은 상념에 쌓여 함께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었다. 이 가을 더더욱 모두에게 떠나는 고향의 그리움이 사무쳤기 때문이다.

데멜리오스, 돈 카슨이 전하는 성경 권위 포기하게 만드는 교묘한 수법 소개(하)

너무 부족한 독서가 초래하는 실패, 특히 오래된 작품의 경우에 관해

책을 너무 읽지 않는 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경의 권위를 방해하는 경향으로 흘러가는 데 일조한다... 너무 적은 양의 독서, 특히 오래된 고전을 멀리하게 되면 현재 유행하는 의제에만 열광하게 되고, 그 결과 단순한 유행을 과도하게 흡수할 뿐 아니라 거기에 도취하기 쉽다.

물론 정반대가 초래하는 실패도 있다. 적지 않은 목회자가 청교도 작품에는 심취하면서 현대 작품을 읽는 데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쓰는 언어, 사고체계, 예화 또는 주제를 들으면 거의 4세기 전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루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이런 주제는 결코 성경의 핵심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굳이 세 명의 요한(존)만을 선택해서 요한 크리스스토모(John Chrysostom), 존 칼빈(John Calvin), 존 플라벨(John Flavel), 이 세 사람의 작품을



동성애, 성경대로 살려는 삶에 가장 방해요소, “오만한 무지의 기술” 오래된 고전 멀리하면 현재 유행의제에만 열광해 설교가 저속해져

그러나 이걸 여기서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은 고전, 특히 주석과 탁월한 신학 작품을 읽지 않는 게 훨씬 더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동시대 작품만 읽을 때 생기는 문제는 누구나 다 비슷한 소리를 하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나 설교가 저속한 수준(kitsch)으로 떨어지기 쉽다는 점이다. 우리는 아주 유창하게 자기 정체성, 환경문제, 관용의 중요성,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그러나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고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등에 관해서 이야기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정 관리와 이혼 후 회복에 관한 세미나도 진행한다.

나는 성경이 이런 주제를 다

터 많이 읽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자주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죄의 무서움, 복음의 본질, 복된 삼위일체, 진리, 제자도, 기독교인들이 고난당할 것이라는 성경의 주장, 잘 죽는 법, 새 하늘과 새 왕국에 대한 소망, 새 언약의 영광,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구원자 이시며 선택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회개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믿음의 의미, 인내와 오래 참음의 중요성, 거룩한 아름다움과 지역 교회의 중요성 등등, 다른 세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발견했던 이런 중요한 주제를 무시하면서 과

연 우리가 성경이 우리 삶과 사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느껴야 할 경외감에 관해

할 것도 없고, 성경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의 무자비한 행동은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경의 실제적인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지적인 의심을 만족스럽게 해결할 때까지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줄어들 것이다. 물론 주님을 향한 두려움의 한 부분은 말씀 앞에서 떠는 경외감이다.

‘오만한 무지의 기술’에 관해

“오만한 무지”는 이런저런 주제와 관련한 성경구절이 주석적으로 혼란스럽고 불분명하기에 우리 인간은 결코 해당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오만하다... 이 오만한 무지의 기술이 오늘날 알려지지 않았거나 실행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거쉬(David Gushee)는 최근에 낸 책과 기사에서 동성애 결혼은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수준으로(agree to disagree), 그러니까 예전에 아디아포라(adiaphora)라고 불렀던 ‘무관심한 주제’의 하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보수”와 “진보”가 동성애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다른 주제와 관련해서 불행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예측한다. 그건 그들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 과 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영상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 데 스 다 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지역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지아이스(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라홍채 목사

세미나 안내

1.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2. 70이레
3.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종교자유는 풍요의 원천...

〈1면에서 계속〉

특히 북한 정부가 종교자유 침해의 원천이자 이유, 도구라고 강조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프레드릭 데이비 위원은 18일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북한 정부는 전 보고서는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는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의해 무시된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은 이 ‘10대 원칙’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가 이런 권리를 특정 건물과 의식을 통해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은 오히려 종교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헌법상 ‘사회주의 문화위반범죄’는 “부패한 미디어의 제작과 보관, 수입”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7살 이상 북한 주민은 모두 조직에 포함돼 노동당 중앙회의의 관리 하에 들어가

고, 절대적인 감시와 보고체계에 속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재판 전 조사 기간 동안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와 고문이 자행된다고 지적했다.

정보수집과 자백확보, 처벌, 위협 등 이유로 가혹행위를 하는데, 물리적 폭력, 고문, 식량, 식수, 잠 결핍, 언어폭력, 강제탈의, 동료죄수들을 이용한 폭력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서는 모든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가혹하게 처

벌된다며, 이는 미국 문화와의 연계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속신앙으로 잡힐 경우 구금이나 강제노동형을 받지만 기독교인의 경우 사형이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동 보고서는 북한정부가 김 씨 일가의 정치적 사상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과 조직, 인력을 활용해 종교를 박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선전 위한...

〈1면에서 계속〉

자간오의 표적에는 국제적 관심을 끌었던 중국 우한의 집단 발병 초기에 날카로운 설명으로 유명했던 작가 광광이 포함됐다.

작년에 인기를 끈 한 게시물에서 자간오 블로거인 ‘Shangdizhiying’은 작가 광광을 “우리의 등을 가장 깊게 찌르고”, “반중 세력이 우리를 비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보다 최근에는 최고 의료전문가 장훙훙 교수가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공식 정책과 모순돼 보이는 제안을 하자 자간오의 표적이 됐다.

몇몇 블로거들은 즉시 과거 논문을 파헤쳐 그를 표적 혐의로 고발했으며, 그의 대학은 나중에 그 혐의를 해명했다. 아이들이 아침식사로 우유를 마셔야 한다는 제안은 그가 전통적인 중국 아침 식사와 가치를 거부한다는 표시로 받아들여졌다. 블로거 ‘Pingminwangxiaoshi’는 ‘이것은 너무 서구숭배와 외국인에 대한 아침이 아닌가?’라고 썼다.

전문가들은 매일 수십 개씩 쏟아지는 이러한 게시물에 종종

짧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입소문을 탄다고 말했다.

중국 소셜 미디어 분석가인 마안 코예체는 “이것은 패스트푸드 민족주의”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한 입 먹고, 나누고, 잊는다.”

많은 사람들은 애국심의 고취가 중국과 서방 간의 긴장이 고조된 결과로 보고 있지만 이는 반쪽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점점 더 세계화되는 세계의 여러 곳에서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민족주의는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중국 정체성 홍보 및 소셜 미디어의 급속한 편재와 일치했다.

코예체는 대부분의 ‘자간오’가 “종종 젊고, 중국의 애국심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국가 굴욕의 역사적 기억을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당신은 중국 문화와 정체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반외국적, 친중국적 감정이 폭발적으로 혼합되어 있다”.

중국 정부가 온라인에서의 발언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보다 강화해 활동가와 일반 시민들에 대한 심한 검열을 초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간오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은 놀랍다. ‘민감한’ 게시물은 웨이보와 위챗과 같은 플랫폼에서 정기적으로 삭제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 정부

의 공식 노선을 홍보하는 경향이 있는 목소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어떤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에 내용을 다시 게시하거나 에세이를 다시 인쇄하는 국영 미디어에 의해 증폭되기도 한다.

한편 ‘자간오’는 복잡한 생태계의 일부일 뿐이다.

중국 소셜 미디어, 특히 웨이보에서 애국적인 담론의 대부분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면화 불매운동(보이콧에 참여한 서방기업에 대한 중국의 불매운동) 당시와 마찬가지로, 단일 해시태그를 만들고 홍보해 토론을 형성할 수 있는 중국 국영 언론매체에 의해 여전히 주도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아티스트, 소규모 미디어 회사, 존경받는 대학교수, 심지어 외국인 블로거를 포함하여 인터넷에서 분노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인플루언서 그룹이 있다.

정책연구소 더블싱크랩의 분석가인 하르프레 케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규정은 사용자가 정당의 선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조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단순히 이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

그는 “당신은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직업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면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특히 도널드 포트슨(S. Donald Fortson III)과 롤린 그람스(Rollin G. Grams)가 쓴 ‘변하지 않는 증인: 성경과 전통 속에 드러난 동성애에 관한 기독교의 일관된 가르침(Unchanged Witness: The Consistent Christian Teaching on Homosexuality in Bible and Tradition)’을 참고하라.

트레빈 왁스(Trevin Wax)가 지적했듯이 이 주제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과 행동 자체를 혁신해 분열을 시작하는

“진보주의자”가 도리어 “보수주의자”를 향해서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분열을 조장한다며 비난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 시대에 이 섹슈얼리티 문제보다 “오만한 무지의 기술”이 더 강력하게 호소하는 곳을 도무지 찾을 길이 없다. 같은 이유로 오늘날 성도들이 삶에서 전심으로 성경에 복종하려고 할 때 이 섹슈얼리티 문제만큼 그들을 성경의 권위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유혹하는 주제도 없을 것이다.



시론

당신은 무슨 성별(性別)을 원하십니까?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영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 곧 바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외우도록 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인칭대명사’입니다. 도표에 나오는 것들인데 영어권에서 생활하다보면 평생 기억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여기에 새로운 대명사들이 듬뿍 추가되고 있습니다. 도표의 아래 부분에 쓰여진 우리에게 완전히 낯선 단어들이 바로 최근에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새롭게 사람의 성을 표현

하는 대명사들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남성 아니면 여성이라는 두 성을 중심으로 사람의 성(性)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의 성에 대한 구분을 남성 아니면 여성, 둘 중의 하나로 나누던 것을 거부하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자신의 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육체가 표현하는 성별과 완전히 다르게 자신의 성별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
I	my	me
you	your	you
he	his	him
she	her	her
ze	hir	hir
ve	vis	ver
xe	xyr	xem
per	pers	per
e	eir	em

만 자라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그 어딘가에 자기 성별을 정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性) 중립적인 대명사의 사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Dana 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 대신에 대명사를 사용할 경우, 여성 대명사 she/her 대신에 ze/hir 를 사용해주기 원할 경우에 ‘She went to the library’가 아니라 ‘Ze went to the library’로 바꾸어 표현해야 합니다. 소유격일 경우에는 ‘Her name is Dana’가 아니라 ‘Hir name is Dana’로 표현해 주도록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미국사회가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세대 및 다음세대는 상대방을 부를 때에 외형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단순히 남성 혹은 여성으로 성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성별 표기를 물어 원하는 쪽으로 성별 표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미 일부 기업체에서는 이력서를 제출할 때에 자신의 성별표시를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는지 묻는 기업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의 성별란에다 “남성/여성/본인이 원하는 성”과 같은 방식으로 추가항목을 따로 두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性)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별이 외형적인 신체적 구분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남자인 여자든 관계없이 내가 느끼는 성별을 나의 성별로 정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런 마음의 느낌은 시간과 함께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다시 그 사람이 원하는 성별로 불러야 되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유사 이래 가장 과학이 발달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사람의 성별 하나도 제대로 구별하기 어렵도록만 들어가는 오는 현대인의 삶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는 결코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 않고 단순하다는 그 평범한 명제가 한 없이 그리워지는 것은 나 혼자만의 느낌일까요?

샬롬!

hankschoi@gmail.com

하나님 말씀의...

〈2면에서 계속〉

그가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평하게 말해서, 성적 취향이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 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 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KCC

담임목사 청빙공고

California Ventura County에 위치한 초교파 독립 교회인 Westlake Korean Community Church(WKCC)가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합니다

자격요건

- ▲ 미국 또는 한국 정규 신학대학원에서 M. Div-이상 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
- ▲ 담임 목사 / 부목사로써 이민 목회 경력 5년 이상인 분
- ▲ 미국 목회를 위해 합법적인 신분을 소유한 분
- ▲ 거듭난 증거가 있고 헌신적인 사명을 가진 분
- ▲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로 설교 및 소통이 가능한 분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가족포함)
추천서(목회자 2인, 성명, 연락처, 관계)
목회 비전 소개서, 학위 혹은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사본, 최근 3개월내 설교영상 2편

접수 방법

E-mail : wkcc.media@gmail.com or Allenkjo@gmail.com
우편 : 2630-A Townsgate Road, Westlake Village, CA 91361

접수 기간 : 10/17 - 12/05/2021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이며 선정되신 분에 한해 개별 통지

WKCC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 www.wchurch.org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갑자기 잘렸을 때...

잘렸다. 어느 날 갑자기. 섬기던 교회에서. 월급도 없었는

데. 많이 섭섭했다. 앞이 캄캄했다. 내년에 그만 둔다고 했

는데... 미리 자르다니. 무시당한 기분. 화가 났다. 오기를 부릴까? 나가지 말고 버틸까? 그럴 수도 없지. 이제 어떡하나? 그래도 크게 맘먹자. 심호흡을 했다. 조금 편안해졌다. 여유가 생겼다. 여기에도 뜻이 있겠지? 신학교 졸업반이라 미리 잘랐나?... 독립하라고? 많이 생각했다. 맘을 고쳐먹었다. 긍정으로 바꿨다. 편안해졌다.

매임으로부터 자유! 참 좋다. 그래도 주일이 돌아오면 허전하다. 아니... 부담스럽다. 딱히 나갈 교회가 없었다. 소속으로부터의 버려짐. 출근시간에 일터가 없다. 실직의 아픔이다. 소외감이 엄습한다. 그래도 주일예배는 드려야 했다. 홀를 털었다. 생각을 바꿨다. 눈을 들었다. 이게 웬일인가? 오라는 교회는 없었다. 그러나 기다리는 교회들은 줄을

서있었다.

그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살았다. 강남의 유명 교회들이 지척에 있었다. 평소에게 가고 싶었던 교회들을 탐방했다. 주일 하루에 여섯 교회를 갔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지칠 줄 몰랐다. 압구정동 상가 건물의 소망교회. 배 밭에 건축한 광림교회. 역삼동 높은 언덕 총현교회. 논현동 빨간 벽돌집 영동교회. 도곡동 할렐루야교회. 신반포 남서울교회. 대치동 은마 아파트 곁 지하실의 믿음의 집. 강남의 저명한 교회들을 살살이 섭렵했다. 모두가 새로웠다. 교회마다 냄새가 달랐다. 은혜도 분위기도 다양했다. 유명 인사들이 많은 교회. 거룩한 예전에 치중하는 교회. 찬양대가 돋보이는 교회. 아멘 소리가 한마디도 없는 교회. 뜨겁게 할렐루야를 외치는 교회. 신비를 추구하는

교회. 얼음처럼 차가운 교회. 가지각색을 맛보았다.

비전도 은사도 다양했다. 설교자들마다 특성이 있었다. 교양적인 설교. 예화 중심의 설교. 본문을 쪼개는 설교. 지성을 호소하는 설교. 철학적인 설교. 감성 깊은 설교. 위엄에 찬 설교. 카리스마틱한 설교. 꼼꼼하게 쟁겼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다. 일일이 메모했다. 실천목회 현장수업이었다. 일년을 이렇게 보냈다. 웅골찬 훈련이었다. 방출된 기회가 준 나만의 특권이었다. 잘리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불가능했다. 잘렸기에 찾아온 기회였다. 그때가 오늘의 나를 빚었다. 목회관, 교회관, 설교관, 리더십과 비전, 목회의 전부를 확립했다.

누구나 한두 번은 잘린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 어느 날 갑자기. 소리도 없이 잘린다.

직장에서. 친구들에게서도. 심지어 반려자로부터도 잘린다. 이것이 차가운 세상이다. 왜 나만 잘렸나? 미워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주저앉지 말라. 전화위복의 기회로 바꾸라. 오히려 자유하라. 그동안 못해본 일을 시작하라. 해보고 싶은 일에 날개를 달라. 그리고 힘차게 날개 짓을 하라. 높이 오라. 높이 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

잘림의 축복을 만들라. 잘림의 특권을 누리라. 물림은 남편에게 잘리고 학교에서도 잘렸다. 물림은 잘린 시간에 해리포터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다. 40년 전에 나를 잘라주셨던 은사님께 감사한다.

jkim47@gmail.com

푸/른/초/장

장성철 목사

(보스턴장로교회)



문제는 기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종교나 믿음과 상관없이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한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문제는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관계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λόγος)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개인의 삶에 적용되면서 레마(ῥήμα)가 되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염려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직면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 불안의 정의

염려나 불안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정이며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의 현상은 심해지면 “불안장애”(Anxiety Disorder)라는 병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정신의학 핸드북”이란 책을 쓴 Quentin Hyder 박사는 모든 의학의 영역에서 불안과 염려에 대한 원인과 진단, 그리고 해결을 위한 이론만큼 다양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불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현실적 불안(reality anxiety)입니다. 외부로부터, 환경적으로 오는 위기를 인식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부역의 가스 불을 끄고 집을 나왔는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극심한 불안도 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신경성 불안(neurotic anxiety)입니다. 본능적으로 위기를 의식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으며 공포감에 빠지는 불안감입니다. 부역의 가스불이 폭발하여 집이 몽땅 타버리지는 않을까하는 공포증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불안(moral anxiety)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불안해하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바로 그 예입니다. 지금까지 심리학과 정신 의학을 지배하고 있는 이론들

은 이런 불안감 해소를 위한 부분적 답을 제시하지만 총체적인 해답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지성과 논리를 가지고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는 원인을 파헤치고 치료방법들을 연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안과 염려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생활을 마스터하라

성경에 불안과 염려에 대한 말씀 중에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편편한 사도 바울의 본문 말씀만큼 불안과 염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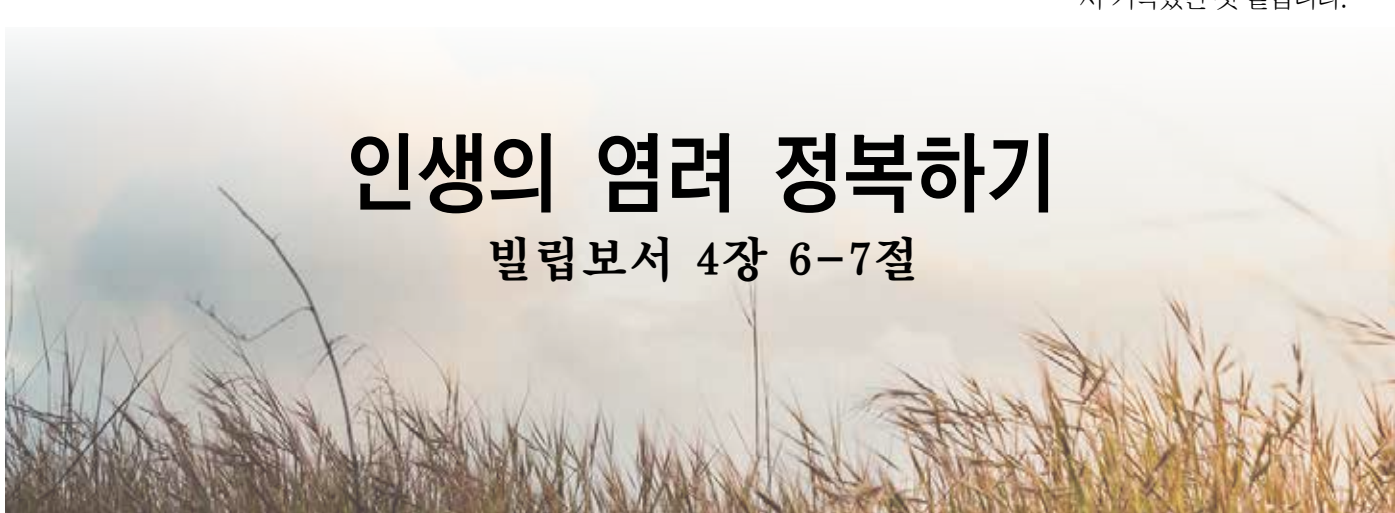
과의 관계가 기도의 능력을 제 위협하는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요14:6).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딤후2:5).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롬8:16)하시기

인생의 염려 정복하기

빌립보서 4장 6-7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불안과 염려는 대부분의 경우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현실적 불안)과 육신의 염려(신경성 불안)와 악한 자로 인한 좌절감(도덕적 불안)으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런 불안과 염려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키고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4:7). 마음이라는 헬라어 “카르디아(καρδιά)”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정서적인 센터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heart”, 우리말로 “심장”인데 생명력을 가리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또한 마음은 생각, 의지, 감정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이지만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와 간구를 드린 열매는 평안한 마음과 생각입니다. 기도하고도 불안한 생각이 맴돌고 있다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평강이란 세상으로부터 떠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두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엄격한 지진과 쓰나미가 휩쓸고 간 것과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함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선물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악재와 재난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옮겨 주신다고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찬양의 삶으로 승리

마지막으로 불안과 염려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찬양의 삶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평안한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불안의 원인 중

하나를 처한 특정한 문제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빼앗긴 마음으로는 절대로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염려를 정복하고 찬양의 삶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4:6). 만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면 문제를 그 분 앞에 아무리 아뢰어 봐야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약1:5-6)고 했습니다.

또한 찬양의 삶으로 인생의 염려를 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4:6).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먼저 감사한다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에게 부탁의 편지를 쓰면서 미리 감사하는 문구를 적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친구가 나의 부탁을 꼭 들어주리라는 신뢰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응답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예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에 준비하신 것을 요구(claim)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의 태도를 가질 때 찬양의 삶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불안과 염려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생활을 마스터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치유받고, 찬양의 삶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기도와 평강, 그리고 찬양의 삶을 현실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생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정복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인생을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chang@bostonkorea.org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CRT교육 반대 부모에 FBI 감시까지 부치다!

지난 2021년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여 미 연방 법무부 장관자리에 앉게 된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공산주의 사상에 뿌리박힌 것이 이미 검증된 CRT(Critical Race Theory, 비판적 인종이론)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Domestic Terrorist(내부테러리스트)”라고 부른지 얼마 안되어 그것도 모자라 지난 9월 14일에는 FBI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메모를 보내어 그의 거짓된 정보와 선동 및 협박성이 다분한 메모로 인해 학부모들의 비판은 미 전역에서 더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의 업적 “성정체성 혁명-Sex & Identity Revolution”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사상, 이념, 역사 바꾸기 혁명 Ideology Revolution”중!

학부모들은 지난 10년간 자신들도 모르는 동안 공립 학교에 침투한 “성혁명, 정체성 혁명”으로 인한 미국의 공립학교의 포르노수준의 성교육을 받은 자신의 자녀들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가정들이 늘어난 가운데, 이제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악한 이념의 CRT를 “선하다”라고 주입교육을 하려는 공립학교에 더 이상 참지 않고 항의를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생각과 다른
미연방 법무부장관

미연방 법무부 장관이라는 메릭 갈랜드는 자녀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학부모들 편에 서기는커녕 “Domestic Terrorist 국내 테러리스트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학부모들이 진짜 테러를 했다는 실제 증거도 전혀 없이 “범죄 행위의 증거”라고 적는 등 인민재판 선동하는 식의 언급으로 메모를 공개하며 FBI로 하여금 학부모들을 “위협 대상” 따라서 “감시대상”으로 몰아갔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뿌리내린 CRT를 계속 좋은 거라고 학군이 이야기하는 것에 격분한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메모에는 비판적 인종이론(CRT) 홍보자들이 학부모들과 대중에게 위협을 가한 사례가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은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의 주장은 공정한가요? 학부모들이 “테러”를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메릭 갈랜드나 민주당 낸시 펠로시 등은 CRT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내부 테러리스트”라고 지정하면서 정작 지난 몇 년간 극좌파들이 일으킨 진짜 테러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격하게 화난 시민들의 항의일 뿐이다”라든지, “이 정도면 현트럼프 정부를 향한 그들의 평화 시위라고 봐야한다”라고 했는데 아래 사진들이 진실을 이야기해줍니다.

법무부 장관의 협박적인 메모는 메모로 끝나지 않았다

선량한 시민의 집까지 감시하는 FBI-미국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갈랜드 법무부장관의 메모는 실제로 학부모들의 집까지 찾아가 비밀리 감시하는 FBI 요원을 발견한 학부모들의 SNS 메시지들은 미국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바꾸려는 극좌파 세력들에 대한 현실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CRT를 가장 강력히 반대하며 학군의 가장 많은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버지니아 북부의 한 엄마에 따르면 FBI는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 회의 밖에서 항의했었던 25명의 부모들뿐 아니라 연세 높은 조부모 집 앞에서까지 서성거리고 또는 숨어서 감시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국국기와 도시에 불을 지르며 Death to America를 외치는 BLM과 반미운동단체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Stacy Langton이라는 여성은 여섯 아이의 엄마인데 WMAL 라디오에서도 지난 29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방정부 차량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계속 우리집 주위를 맴돌고 있는 차량에 DHS(국토안보부)라는 표시가 달려 있었고 얼마후 헬리콥터까지 떴서 약30분 동안 맴돌며 우리집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모두 놀랐다.”

그녀는 본래 공립학교 포

느로 수준의 성교육 때부터 깨어있는 학부모입니다. 지난달 아들의 학교 도서관에서 소아성애를 묘사한 두 권의 포르노 책을 발견했을 때 교육위원회 운동에 참여했고, 9월 23일 폴스교회의 루터 잭슨 MS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섹스 장난감 및 자위의 포르노 만화를 보여주는 책 중 하나에서 확대된 페이지를 들고 교사들에게 다 음처럼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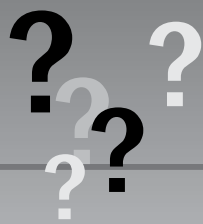
“이 두 책 모두 소아성애, 성인남자와 소년 사이의 섹스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한 흑인 학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는 3명의 자녀들이 있다. 그들이 미국에서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적은 없다. 그들의 피부색깔 때문에 그들이

억압을 받는 자라고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짓이다. 나는 억압을 받은 자가 아니다. 내 피부색깔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못하고 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학교가 피부색깔이 까맣면 억압을 받는 자고 백인이면 억압자라는 말도 안되는 사상을 겨우 5살된 내 자녀에게까지 가르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현재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53절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시간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부활하여 예수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의 실제의 부활사건인지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하버에서 이희은

A: 좋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3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지성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칼빈의 말이 옳다면 지진과 무덤이 터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났고 또한 지진은 무덤에 있는 성도들을 부활시키기 위한 전조였을 것입니다.

신약의 유명한 주석학자인 윌리엄 헨드릭슨은 성도들의 부활사건을 가리켜 말하기를 1)실제의 부활사건이다. 2)이 일은 주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발생했고 다른 표적들과 함께 나타났고 그 죽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3)죽음에서 부활한 성도들은 곧 무덤에서 나왔으나 주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았다. 4)그들은 부활하였으나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갔을 것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5)이 표적은 예언적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재림 때

예수님 부활 후 그들도 부활...실제 사건

우리의 영광스런 부활의 보증이 됨을 보여준다. 펜스키는 이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표적증거(a sign Testimony)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27:53). 이 원문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고 2)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 칼빈 선생은 무덤을 열어 제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전에 일어났는가?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성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실제 부활 이후에 일어났다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임종시에 무덤이 곧 열렸으며 예수님의 부활시에 성도들 얼마가 부활하여 돌아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본 것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박윤선 목사도 성도들의 몸은 무덤들이 열림에 따라서 동하였으나 완전히 부활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되었다고 그의 주석에 말합니다. 부활의 순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계1:5)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고전15:20).

헨드릭슨의 견해와 요한 칼빈의 견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헨드릭슨의 해석이 맞아 보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측면에서 해석하면 요한 칼빈이 말한 대로 예수님 부활후에 그들도 부활하여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저는 헨드릭슨의 견해보다 요한 칼빈의 해석을 취합니다.



Midwest University 는 텍사스 주정부 고등교육국의 인준과 연방정부 인가기관, SEVIS I-20 발행을 인준받아 Dallas, Texas 에 항공 조종사 면장과정, 항공 정비사 면장과정, ESL 과정을 오픈 합니다.

Midwest University

College of International Avi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Pilot, Aviation Management Engineer

M.B.A. Aviation Safety Management

Ph.D. in Leadership International Aviation Management Leadership

항공경영학 학위 + FAA Pilot 면장 취득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Professional Pilot Certificate Program(FAA)

조종사 면장과정 10-12개월 소요 (FAA Certificate)

Certificate Program

항공조종 교관, 항공정비 엔지니어 과정

* 미국의 타 항공학과에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SEVIS I-20, J-1 Visa)

* 자가용, 계기, 상업용 FAA 면장까지 10-12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으며, 면장 취득 후 교관과정 (2-3개월 취득가능) 취득 하여 교관으로 활동하여 1000시간 이상 타임빌딩 가능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Dallas Campus: 4849 Spartan Dr., Denton, TX 76207
Tel : (636)327 - 4645
E-mail : dallas@midwest.edu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그 밤 버스

매주 토요일 새벽 딸과 함께 워싱턴DC에서 뉴욕행 3시 30분 새벽 버스를 타고 맨해튼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다닌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12살 아직 아기 얼굴을 벗지 못한 딸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매주 뉴욕을 가는 것은 큰 부담이었지만 세계적인 교수님께 실력을 인정받아 레슨과 음악에 관한 다양한 수업,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수 있고 학교에서 장학금도 많이 받았다. 모든 것이 하나 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감사할 뿐이다.

무엇보다 하프전공인 딸은

개인악기를 가져가지 않아도 되어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매주 뉴욕을 여행하듯 이 모든 일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토요일 엄마와 딸의 데이트는 모녀뿐 아니라, 아빠와 아들 남자들만의 시간을 갖는 부자 서로에게도 매주 특별한 이야기와 추억을 만들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1년의 버추얼 수업은 우리가족 모두에게 잠깐의 쉼이 되어 어려운 가운데 감사함을 찾을 수 있었고, 이번 가을학기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했다.

새벽버스는 주로 유럽의 젊은

관광객들과 뉴욕으로 관광 가는 가족들이 많이 보인다. 다양한 언어와 인종의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 가는 설렘을 가득안고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든다. 버스가 맨해튼에 들어가는 링컨터널을 지날 즈음, 동트는 아침햇살에 반짝이는 창문 밖 고층빌딩을 사진에 담으려는 사람들의 감탄과 웅성거리는 익숙한 소리에 딸과 미소를 짓는다.

모든 수업을 마친 후 우리는 다시 저녁 7시30분 버스를 타고 버지니아로 내려온다. 새벽과는 달리 밤 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타지는 않는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같은 시간 버스를 이용하는 나와 딸을 아는 버스기사들도 많아서서 안부도 물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지난 주 토요일은 가을비가 내려 뉴욕의 밤을 촉촉이 적시며 마음까지 젖어들게 했다. 오랜만에 내리는 비는 생각보다 많이 내렸고, 미리 우산을 준비한 우리는 괜찮았지만,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다른 승객들은 자켓 모자를 쓰거나 비를 피하려 건물 처마로 들어갔다.

버스는 늘 미리 기다리고 있

다가 승객을 싣고 정확히 출발했었는데, 이상하게 비가 오는 그날은 버스가 주차장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긴급으로 텍스트와 이메일이 왔다. 중간에 사고로 버스가 2시간 정도 늦게 9시30분에 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소식을 접한 승객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해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져나는 딸에게 우리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에게 우산을 하나 빌려주고 우리는 같이 쓰자고 했다. 우산을 건네자 학생은 자기가 정말 사용해도 괜찮은지 여러 번 물으며 너무 고마워했다.

인도전통의상을 입은 노년의 부모님과 남매가족, 우리모녀, 네 명의 젊은 프랑스 배낭 여행객들, 중년 백인여성, 잔뜩 쇼핑을 한 쇼핑백이 비에 젖어 젖어져 안고 있는 몇쌍이 흑인 아가씨들, 다른 몇몇의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함께 버스를 기다렸다. 새로 버스가 올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도가족의 아들은 비를 뚫고 달려가 매번 기사에게 워싱턴행 버스가 아닌지

확인을 했다. 의자도 없이 계속 서서 기다리는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뛰어다니는 아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다. 비라도 안 왔으면 기다리기가 더 수월했을 텐데.....

모두들 추위와 기다림에 지쳐갈 때 버스 한 대가 들어왔다. 시간 전에 들어온 버스와 별 기대 없이 있는데, 차에서 내린 기사가 "워싱턴 버스!" 라고 크게 소리쳤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버스에 올랐다.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인도가족을 제일 먼저 탈 수 있게 기다렸고 괜찮다고 했지만, 일행 중 제일 어린 학생인 딸을 배려해주며 우리에게 차에 오르라고 했다. 차례차례 젖은 옷을 털며 버스에 오르자 기사는 고생했다며 친절하게 큰 페이퍼 타올을 건네며 물기를 닦으라고 했다.

우리가 우산을 빌려준 여대생은 언제 다녀왔는지 음료수 두 병과 함께 우산을 돌려주었다. 인도가족은 혹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스낵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고, 그 사이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된 사람들은 서로서

로 충전라인을 나누며 전화기를 충전했다. 히터로 따뜻한 버스안의 온도와 안도의 웃음소리들.....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한 이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서로 너무나 다른 각각의 나라, 각각의 인종은 그 순간 서로에게 모두 위로가 되어주었다. 물론 항상 조심해야겠지만, 최근 뉴스에 보도되는 갈등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 대중교통을 다시 이용하여 뉴욕에 다니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경계하던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 버스가 출발하고, 실내등이 꺼지며 우리는 링컨 터널을 지나 맨해튼을 벗어나고 있었다.

아침보다 더 화려한 맨해튼의 야경은 내리는 비와 함께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기관·신학교, 이름에서 기독교 색채 빼고...

오랜 전통의 국제 기독교 단체와 신학교가 단체명에서 기독교 색채를 감추고 대중에 다가갈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고립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해 다가가기 위해서다.



미국 크리스체너티튜데이(CT)는 최근 캐나다 다트온협회가 단체 이름을 '셰어 워드 글로벌(Share Word Global)'로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구약시대 사사인 기드온의 이름 대신 성경을 보급하는 단체의 정체성에 방점을 찍은 새 이름을 선택했다.

애런 앤더슨 셰어 워드 글로벌 대표는 CT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단체명을 변경했다"며 "가서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셰어 워드 글로벌은 코로나19 중에도 200만부의 성경을 나눌 예정이며 스마트폰으로도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 '뉴라이프'라는 애플리케이션 보급에 나섰다. 1899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시작된 국제기드온협회는 전 세계 호텔 학교 병원 군대 교도소 등에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한국에는 1963년 지부가 설립됐다.

1971년 설립된 미국 필라델피아의 '비블리컬 신학교'도 최근 '성서'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 '비블리컬(Biblical)' 대신 '미시오(missio) 세미너리(seminary)'로 교명을 바꿨다. 미시오는 '선교'라는 의미의 라틴어다.

근래 이 학교를 방문했던 송태근 삼일교회 목사는 "세상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신학교의 정체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명을 변경했다"며 "'보내다', '선교'라는 의미를 지닌 미시오라는 교명을 통해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신학교가 되겠다는 정체성을 담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학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캠퍼스를 노숙인과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내 중심으로 이전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 대상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다.

이 같은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1년 미국 대학생선교회(CCC·Campus Crusade for Christ)는 단체명을 '크루(Cru)'로 바꿨다. 미국 CCC는 오랜 논란 끝에 크루라는 이름을 최종 선택했다. 십자군을 뜻하는 '크루세이드(Crusade)'가 단체명에 포함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CCC는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크루는 90년대 중반부터 암암리에 쓰였던 약칭으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며 "크루란 이름이 복음과 함께 세계로 나가는 우리의 목표를 잘 설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 성별은 'X' ...제3의 성 표기 여권 첫 발급

미국이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기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

AP통신은 미국 국무부가 제3의 성별을 뜻하는 'X' 표기가 된 첫 번째 여권을 27일(현지시

간)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자신을 남성 혹은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는 '젠더 쿼'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에서 벗어난 정체성)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누가 해당 여권을 발급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제니퍼 스톤 성소수자(LGBTQ) 인권 외교 특사는 "이번 조치는 '남'과 '여' 보다 더 많은 인간의 성 특징이 있다는 현실을 정부 문건에 담은 것"이라며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신분증명서를 갖게 되면 더 큰 존엄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의료기록을 통해 증명하지 않고도 자신이 규정한 성별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출생 신고 등에 표기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여권 신청을 할 때 의료 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국무부는 내년에는 성별 표기와 관련해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여권 성별 표기에 'X'와 같은 선택지를 추가로 제시하는 나라가 미국 외에도 캐나다, 독일, 아르헨티나, 인도, 네덜, 파키스탄 등 최소 11개국이라고 설명했다.

스톤 대사는 "미국은 이번 조치를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긍정하고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다른 국가 정부에도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가톨릭 나라 브라질에 '박동주 목사 도로' 생긴다

인구 23만4000명의 브라질 상파울루주 오르톨란디아(Hortolandia)시에 한국인 이름의 도로가 생긴다. 평범한 한국인 이름이 아니다. 10명 중 7명이 로마가톨릭 교인인 브라질 사회에서 '목사'라는 수식어까지 붙은 도로명이다.

오르톨란디아시는 시의회가 지난달 17일 제랄도코스타카마르고 공공도로 사이에 위치한 길을 '루아 박동주 목사(Rua pastor Dong Joo Park)'로 명명하는 내용을 승인했다며 호세 나사레노 제제 고메스 시장 대행 명의로 관보에 게재했다.

이 길에 붙여진 이름, 박동주(사진) 목사는 1990년 2월 인천제2교회 부목사로 부임해 9개월 뒤인 11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 선교회(GMS) 소속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브라질에 도착했다. 이후 31년간 브라질에서 사역하다가 지난 6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별세했다. 65세의 나이였다.

박 목사 부부는 자녀와 함께 90년 11월 29일 브라질에 도착했다. 인구 1000만명 넘는 남아메리카 최대 도시 상파울루주의 상파울루시 부근 20여개 위성도시를 선교 사역지로 삼았다. 그리고 빈민가를 찾아 교회를 세웠다.

상파울루 지역과 아마존 신학교에서 강의와 신학 영성 훈련을 하며 현지인 지도자 양성에도 힘썼다. 세 번째 교회를 끝까지 지킨 6명은



박 목사를 통해 신학교에 입학해 목사 안수를 받거나 교사가 되는 등 사회적 리더로 성장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해 '박동주 목사 도로' 인근 아만다 지역의 CPI아만다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받았다.

장례식은 CPI아만다교회에서 열렸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다. 아들 형우씨는 "아마도 장례식 때 아버지의 삶을 기리자는 이야기가 나왔던 듯싶다"고 전했다. 가족들도 모르게 지역 주민들은 박 목사의 이름이 붙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형우씨는 "도로에 아버지 이름이 붙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 선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박 목사가 양육하고 세운 현지 동역자들도 그의 사역을 이어갈 예정이다.

종전선언 논의 '제동' 韓美 '이견' 수면 위로

잘 굴러갈 것 같았던 한·미 간 종전선언 논의에 암초가 걸렸다. 종전선언과 관련한 한·미의 입장 차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계기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순서·시기·조건'을 거론하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 후야 종전선언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사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북 정책에 있어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느냐.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한·미)는 단계별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고수하며 북한이 먼저 외교 테이블로 나오기를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한·미 협의 설명과 결이 다르다. 지난주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후 정부 고위당국자는 종전선언과 관련,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 상당히 유용하다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설리번 보좌관 발언은 종전선언에 대한 이런 한·미 간 온도 차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의정부의 임기 말 상황을 감안해 내년 대선 때까지 더욱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미국 내 일부 기류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최근 한·미 협의에서 한국은 종전선언을 위한 구체적 진전을 위해 미국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은 파급 효과를 걱정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고, 외교는 역지력과 협력을 이뤄야 한다는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대해(한국과) 근본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와 역지력'을 함께 언급한 것 역시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북 제재 완화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효하고, 회원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실제 종전선언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씨가 리 کن시연구소 동아시아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워싱턴은 한국 제안을 시급하고 진지하게 고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는 종전이 장단기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와

관련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이 생각한 건 비핵화 입구에서의 종전선언이지만 미국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북한이 일단 회담에 복귀를 해야 미국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면서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하에 종전선언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델타변이발 코로나3차 웨이브 지나가

미국을 강타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발 코로나19 팬데믹 3차 유행의 기세가 뚜렷하게 꺾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중증환자 발생률과 입원율, 사망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집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존스홉킨스 의대에 따르면 10월 마지막주 미국 전체 일일 확진자가 7만2000명 이하였다. 지난 9월 중순 이후 뚜렷하게 하향곡선을 그리다 10월 둘째주를 넘기면서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미국 질병감염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발 3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지난 9월 중순까지는 매일 16만명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데이비드 위렌스키 CDC 소장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10월 마지막 주의 신규확진자 수는 그 전 주에 비해 16%나 더 떨어졌다"면서 "이 추세대로라면 11월과 12월 들어서 훨씬 더 감소폭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감염자의 중증 발생률과 입원율, 사망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팬데믹 사태 초기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입원해 집중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전이됐고, 백신 접종률이 크게 오른 뒤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의 중증 전환율이 절반 이상이었던 데 비해, 10월 초반 40%로 떨어졌다 최근엔 20% 이하로 더 급감했다.

존스홉킨스 의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9월말까지 매일 2000명 이상이었던가 최근엔 1400명까지 줄었다.

위렌스키 소장은 "가장 강력한 변이였던 델타 바이러스의 위력도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 이제 잦아들고 있다"면서 "백신에 의한 집단 면역 효과가 뚜렷해지면서 팬데믹의 정점이 지나가는 모양새"라고 언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500만명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질병 전문가들은 실제 사망자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WSJ는 미국보건조사협회 마커스 플레시아 회장의 말을 인용해 "지금은 백신과 치료제를 비롯해 코로나19에 맞설 다양한 임상적 무기를 갖게 됐다"면서 "아마도 지금이 팬데믹 사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낮은 기온에서 확산 정도가 더 심해지는 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이번 겨울이 방역의 성과를 가르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느슨해진 방역의 고비를 좀 더 좌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34. 이우식(1868-1948)

이우식(李雨植)은 1868년에 황해도 개성 대원에서 출생하여 부인 열례와 함께 1905년에 멕시코 유카탄으로 이민하였다. 1909년 5월에 노동계약에서 자유를 얻게 되자 그는 한인동포의 권리 확보를 지원했고, 1918년에 국민회 메리다 지방회 산하 산다베 지방의 경찰원으로 활동했으며 2년 후 그곳에 지방회가 조직될 때 재무에 선임되었다.

1921년에 3월경에 남미 동포와 함께 제2고향인 멕시코를 떠나 그해 4월 조순에 쿠바 마나타 지방에 도착하였다. 그해 9월에 국민회 마나타 지방회가 조직될 때 그는 재무였다. 1923년 9월에 맛단사스 쿠바 민성국어학교가 개학했을 때 그가 이영환 등과 함께 찬성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아 맛단사스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맛단다스 지방회를 설립한 지 4개월이 되던 1921년 10월 5일에 이곳 까타자스 지역에 '한인예수교회'가 조직되었다. 이 교회는 감리교인과 안식교인이 자신들이 속한 교단을 주장하지 않은 한인 독립교회였으나 한인감리교회로 알려졌다.

이우식은 1923년 10월에 이흥식의 부인 병비를 후원했고, 그해 12월에 내지 수재 구제금을 냈으며, 이듬해 2월에는 서문경의 부인 병비를 기부하는 등 구제에 힘썼다. 그런데 이우식은 1924년 9월 17일에 부인이 별세하는 슬픔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서도 그는 그해 12월에 의무금을 납부하고 이듬해 2월에 기근 구제금을 내는 등 구제에 계속했다.

1924년에 말미라 B. 터커 여선교사가 한인 예수교회를 찾았다. 터커 여선교사는 1922년에 맛단사스의 중앙기독교학원에 파송된 미국 남감리교 여선교사였는데 1912년에 내한하여 1922년까지 한국에서 사역했으므로 한국어에 능통했다. 터커 선교사는 한인 동포를 사랑했고, 친절하게 한인교회를 섬겼다. 이듬해 2월에 미국인 선교사가 주례하여 한인 예수교회에서 부경조와 김용복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부인이 소천한 이듬해인 1925년 10월 15일 주일에 이우식에게 차녀 이다부대와 지방회 재무 유윤홍이 교회 권사 양준명의 주례로 결혼하는 기쁨도 있었다. 이

날 지방회 법무부는 신혼 문답식을 거행하고 스페인어로 번역된 혼인증서를 발급한 다음에 오후 2시에 예배당에서 월례회로 단장한 가운데 찬송과 기도가 있은 후 신랑신부와 주혼증인에게 문답식을 거행하였다. 신랑 편에 주혼 임병일과 증인으로 장영기와 박창원이 섰고, 신부 편에 신부 아버지와 박후만나 부인과 감마리아 부인이 섰다. 이날 한인, 쿠바인과 중국인 등 약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 후 오후 7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이우식 전도사

1933년 5월 이후에도 교회 명칭은 한인 감리교회였다. 이우식이 전도사로 선임되었고, 그의 총무 집사에 고창덕, 서기 집사에 태덕일 그리고 재무 집사에 이흥점이 선출되었다. 그해 12월에 맛단사스

목사안수를 거행하였고, 방경일, 차희관, 고창덕, 이덕일, 호근덕과 함께 이우식이 집사로 선출되었고 다음 달인 1929년 11월 8일에 한인예수교회는 한인감리교회가 되었다. 1929년 10월에 맛단사스 한인 감리교회가 조직되던 때까지 이우식이 전도사로 활동했을 것인데 1928년 3월에 터커 여선교사가 전도부인으로 활동할 때부터라면 약 3년간으로 보인다.

1930년 이우식은 맛단사스 지방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광주학생운동을 후원했다. 그해 12월에 맛단사스 지방회에서 국민회 창립기념식을 개최할 때 그는 한국독립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사를 하였다. 이듬해 본 지방회 회장을 맡았고, 회장 이던 1933년 5월 1일에 맛단사스 청년학원에서 원장 임택택의 사회로 순국 의사 추도회가 있었을 때 그는 이세창과 서문경과 함께 추도사를 담당했다.

1933년 5월에 장영기 전도사와 터커 선교사 간에 불미스러운 시비가 발생하여 터커 선교사가 전도부인직을 사면하자 장영기의 신망이 떨어졌고 선교부 연락까지 끊어졌다. 그러자 장영기는 맛단사스 한인 안식교회를 조직하고 그 교회 전도사로 활동했다.

한인 감리교회 전도사

1933년 5월 이후에도 교회 명칭은 한인 감리교회였다. 이우식이 전도사로 선임되었고, 그의 총무 집사에 고창덕, 서기 집사에 태덕일 그리고 재무 집사에 이흥점이 선출되었다. 그해 12월에 맛단사스

유카탄에서 쿠바로 이주, 한인예수(감리)교회 전도사로 재직

조선국어사전편찬회 발기인, 맛단사스 지방회 회장 등 역임

한인예수교회 전도사

1926년의 3월부터 쿠바 선교부는 매일 25달러씩 한인감리교회를 후원하였고, 터커 선교사를 본 교회 전도부인으로 파송하여 예배를 인도하였다. 이해 12월 5일에 지방회 신규임원 교체식이 있었을 때 신임 회장이 선사문을 낭독하였고, 회장이 성경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이우식이 기도했다.

이우식의 아들 이원실과 딸 이노디와 다부대가 1928년 성탄절 이틀 전인 12월 25일에 아버지의 환갑잔치를 열었고, 사위 윤창배는 안팎 의복을, 박창운은 안경과 금지환과 은수저를 선물했다. 이날 신한민보는 이우식을 한인예수교회 전도사로 소개하였다. 그해에 그는 조선국어사전편찬회 발기인으로도 참여했다. 직업과 노동이 박약한 가운데 한인예수교회 발전이 없었는데 터커 선교사가 주선하여 인근 쿠바인 감리교회 목사와 여러 장로가 모인 가운데 1929년 10월 23일 수요일 하오 3시에 미국 감독이 장영기에게

지방회 임원 교체식에서 감리교회를 대표한 이우식이 안식교회를 대표한 장영기와 함께 축사를 담당했다.

1934년 11월 18일에 이우식 전도사의 아들인 32세의 이원실과 장성실의 딸인 23세의 장사라가 한인감리교회 예배당에서 양준명의 주례로 결혼했다. 폐백이 있는 다음 고창덕의 기도, 주혼 편 이우식의 예사, 이세창과 박창운의 축사와 축배가 있었는데 그날 참석한 내외賓객이 100여 명이었다. 이날 혼인잔치는 이우식의 딸 이마리아가 극력 주선하였다고 하는데 해금과 장고 및 소고 등 한국식 음식에 맞추어 장년과 청년 남녀가 무도회를 열었고, 이후 유성기에서 나오는 소리에 맞추어 무도회도 있었다. 이날 받은 선물 중에는 맛단사스 중앙기독교 감리교의 리드 미국 여선교사(맛단사스 고등보통학교 교장)의 착한 집시 4개와 큐리취 여사의 유리 항아리 1개와 잔 6개와 미젤봉 씨의 신랑 구두 한 켤레와 신부를 위한 향수 1갑도 있었다. 그런데 결혼식 1주일 만에 한인 동포 차순재가 향년 64세로 익사하는 비보를 받았다.

1934년 성탄절 1주 전에 양희용 모친의 회갑잔치가 있었고, 이어서 성탄절에는 두 번의 큰 행사가 있었다. 리드 미국 여선교사가 교회음악대를 대동하고 한인촌에 이르러 12월 23일 저녁 7시에 성탄극을 연출했다. 리드 여선교사가 고문하고 박선녀가 지도하여 이유몽, 이흥점, 김순덕, 김복녀, 김보배, 이복선, 이경옥, 이복금, 주미엽, 이복희, 호갑순, 박동기, 주화엽, 박동홍, 박기순 등 청소년이 출연한 성탄극은 수십 명 청중에게 1934년 전 예수께서 탄생하셨던 것을 묵도하는 감상을 새롭게 했다. 성탄극이 끝난 후 리드 여선교사는 아동들에게 준비한 유품품 등을 나누고 그날 9시에 마쳤다. 한인 교인들은 물론 동포들도 극진한 후의를 보여준 리드 여선교사에게 감사했다. 수전 위원 호근덕과 기쁜 준비위원 고창덕과 태덕일이 준비하여 12월 24일 밤에 예배당에서 이우식 전도사의 주례로 성탄절 예배를 드린 후 교인들에게 과자를 나누고 차와 주찬으로 참석한 동포들을 대접하였다. 교회 직원은 금번 성탄절에 총 15원 35전을 후원하신 여러분에게 감사했다.

1935년 1월 21일에 있었던 박창운의 생일잔치에 이우식 전도사가 참석하여 천도교 쿠바 총리원 장덕암과 함께 축사 순서를 하였다. 그즈음에 박창운 가정에서 딸을 낳은 기쁨도 있었는데 민성 국어학교 교사가 이세창을 감기로 고생을 하였다. 그해 2월에는 김석봉의 대상일이 있었다. 아내 쿠바인 히메네스와 아들 아린은 몇 주 전부터 준비하여 그달 21일 오후 7시 30분에 이우식 전도사를 모시고 대상

은 애국가 제창과 국기경례에 이어 기도하였다. 그해 11월 22일에 이우식 전도사가 갈데나를 삼방했다. 만 2차 동안 병환에 있던 사위 되는 윤창배를 위문하고 난 뒤 하루 밤을 지나면서 인근 동포들을 심방한 후 이튼날 맛단사스로 돌아왔다.

1937년 10월에 신한민보에 게재된 교회 주소는 맛단사스의 사서함 273번과 갈데나사 사서함 2867이었는데 한인감리교회와 한인안식교회 주소일 것이다. 그해 12월 24일 밤에 이우식 전도사의 주례로 성탄예배가 있었다. 이복희 등이 '오! 산디시모'와 '어린이들 찬송하라'로 시작되는 찬송가 65장을 불렀고, 박동홍 등이 성경구절을 낭독하였으며, 박동기 등이 시편을 낭독하고 찬미하였고, 김보배가 성경을 강독하였으며, 김경옥 등이 찬미하였고, 이복선 등이 성경을 강독하였고, 찬송가 212장과 '벨리따스'의 '목자를 오나라' 등을 불렀으며, 이거복 등 두 소년아동방박사가 되어 연극한 성탄극에서 수십여 명의 청중이 크게 감동하였다. 그리고 이흥점과 이경옥의 지나 공주와, 김순덕과 김보배의 '단지', 장천희의 시, 임경옥의 '곧데시따', 김보배의 시, 김순덕 등의 '아버나갈', '무네기따', '굿나잇' 등의 시 강독과 연극 등은 성탄절에 이채를 더하였다. 밤이 늦은 가운데 주찬과 다과를 나누었고, 박창운이 제공한 돼지 지지고 닭주와 포도주의 향기는 좋았으며, 어린이들은 교회가 준비한 과자를 나누며 좋아했다. 이우식의 전도사직은 1937년 말로 보인다. 이듬해부터 양준명이 공식 석상에서 기도를 하는 등 교회를 대표하여 활동하기 때문이다.

이우식은 자부 김운옥이 1943년 6월 8일에 사망하는 남편 이원실과 일곱 살된 아들을 두고 향년 31세로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맞았다. 실상가상으로 이듬해인 1944년 10월에 맛단사스 한인 감리교회의 양준명 전도사가 소천하는 슬픔을 맞는다. 양준명 전도사의 소천으로 이우식이 다시 전도사로 재직하게 되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다음 달 11월 17일에 아침부터 동 지방 회관에 반기를 단 가운데 연합순국선열 기념식이 있었고, 회회를 대표한 이우식이 고창덕, 장영기, 서문경과 함께 기념사를 하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1944년 12월에 맛단사스에는 남자 73명과 여자 57명으로 130명이 거주했고, 학생으로는 중학생 1명과 소학생 24명이 있었으며, 대부분 노동하였으나 박선봉과 박선환 형제는 폐물 상점을 경영했고, 한미숙, 박선녀, 이산호, 임경옥은 필복소매점 재봉업에 종사했으며, 박창운과 임병일은 노동 주무원이었다. 이듬해 12월 27일자 신한민보의 맛단사스 지방회 보고에서 이우식 등 8명이 맛단사스 지방회 명예회원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는 1948년의 성탄절인 12월 25일에 향년 80세에 소천했다. 2011년에 한국정부는 그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현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상)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 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나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주 일 학 교: 오후 1:20 영어권 (장소: KDC, 침례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계속하여 돌아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주 일 2부: 오전 9:45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 4부: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 오후 7:30 Tel, (213) 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6: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금) 새벽 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 749-49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 1부 예배: 오전 7:15 주일 2부 예배: 오전 9:15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미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	엘피스가족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열매장교회 협동목사) 상담사: (월-금) 오전 9:45 (분당) 사목대: 1. 위생사목, 2. 교회 정신도 여성사목, 3. 목회상담, 4. 가정사목, 5. 영성사목, 6. 사목교육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성경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 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평일)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경대망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ccj.org 16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영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Torrance, CA 9050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rsstonei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 M 예 배: 오전 9:45 (101분)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 요 예 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분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g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주일 6:30(토) 수요모임: '영성경이 읽어드려'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42)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렌제일교회)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11)

-반대 8: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따르려 하지 않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사람들은 우리에게 교리를 배우러 오지 않을 것이고 자기는 배우기에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필요 없이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괴롭히느니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 더 낫다.

-대답: 많은 사람들이 사악하며 고집스럽다고 해서 이 일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사람들은 단순함을 좋아하고 남을 경멸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데에 기쁨을 느끼며 바보들은 지식을 싫어한다. 그러나 그들이 완악할수록 그들은 더욱 슬픈 처지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더 많

며, 그 같은 성공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만큼 소중한 것이다.

-반대 9: 우리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설교를 듣고도 회심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회심할 것 같은가?

-대답: 의사가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면 그는 이미 자기의 일이 반을 다 해놓은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들의 상태를 잘 알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무식하고 완고한 마음을 지닌 죄인과 한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은 한 시간 동안 연구하는 것 이상으로 설교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줄 것이다. 그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서 우리는 무슨

다음과 같은 말 한마디가 12달 동안 연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형제들이여 이것들을 눈에 잘 들어오게 큰 글자로 써서 서재에 붙여두고 배울 수 있다면 훌륭한 설교자가 되리라.

(1)우리의 일반적 업무-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긴 것

(2)우리의 특수한 업무-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살가라.

(3)우리의 가르침-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4)가르침의 장소와 방법-공중 앞이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전하여 가르치고

(5)그의 부지런함과 열정-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이(는 영혼들을 얻고 그들을 보존하기 위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리라.

(10)그의 순수한 양심-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목사가 이렇게 신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이 그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익하다. 그가 그 목적에 대하여 진실된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수고나 고통도 그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막거나 그를 그 일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게 된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목적이 있어야 한다. 확고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소홀히 한다고 해도 이 교훈만은 가슴에 담아 두게 될 것이다. 우리

삶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어떤 수고나 고난도 멈추게 하거나 위축시킬 수 없어

은 동정을 받아야 하며 우리는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더 부지런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마땅히 그해야 하는 것처럼 그들 앞에서 우리를 태워 빛나게 하고, 우리가 전하는 설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삶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만일 우리가 그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며 더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풍성하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세상적인 것들에 빛을 비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완고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고집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의무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 비록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거절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

말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물리쳐야 할 그들의 이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대화는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리만큼 바보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가 몇 명을 상대로 이야기했는지 사람 숫자가 설교와 설교 아닌 것을 구분 짓는가? 대화는 설교가 될 수 없는가? 한 사람을 놓고도 진지한 설교를 할 수 있다. 신약에 기록된 설교는 대부분 대화에 의해 이루어지고 주로 문답체로 나타난다. 그리스도도 주로 이렇게 설교하셨다. 또 만일 우리가 일에 성공을 거두고 싶어 한다면 성도들의 지식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유숙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위대한 의무와 소망스런 결과 그리고 축복스런 보상을 바라면 우리는 뒤로 물러서거나 무기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함이었다)

(6)그의 충성됨-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여 가르치고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음이니라.

(7)복음을 위한 그의 자기부인과 청렴함-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법사에 너희에게 보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8)그의 인내와 끈기-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9)그의 부지런한 기도-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어떠한 수고나 고난도 그들을 멈추게 하거나 위축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 삶의 목적을 성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9:16).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상은 자기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해주고도 남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과감히 투자할 것이며 그렇게 비싼 진주를 사기 위해 모든 것을 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열심을 다하여 신실하게 이 일을 수행해 나갈 것을 결심했다고 믿고 싶다.

hyojungyoo2@yahoo.com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종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역경을 이겨내는 힘

사람들의 비난과 모함으로 고난의 늪에 빠져본 적 있나요?

SNS, 유튜브를 통해 소통하는 문화가 발달하면서 악플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친구나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결국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만 가는 요즘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마지막 편지에 다른 사람들을 찾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필자는 이렇게 만든 타인도 큰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당사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헤치고 역경을 이겨낼 성품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품을 연마하여 역경을 이겨낼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을 매장하기 위해 던진 비방과 모함과 굴욕의 흉들을 이용해 승리의 발판으로 삼은 당나귀의 우화를 소개해 봅니다.

어느 날, 농부가 기르던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쓸모없는 우물도 파묻으려고 했던 터라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흉을 파서 우물을 메꾸어 나갔 습니다. 당나귀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졌습 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울부짖음이 사라져 버렸습 니다. 사람들이 궁금해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 습니다. 당나귀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더미를 털고 털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자신에게 떨어지는 흙들을 털 어내면서 흉은 당나귀의 발밑에 쌓이게 되고 당나귀는 이 흙더미를 이용해 점점 더 높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고 던진 흉 들을 이용해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경은 이겨내고 극복해야 하는 과정입 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매장하기 위해 던진 비방과 모함 과 굴욕의 흉이 오히려 자신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 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라고 고 백한 시편 기자처럼 역경을 넘어서면서 비로소 알게 되 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난의 흉을 던질 때 그것을 맞고 쓰러 질 것이나 아니면 오히려 털어버려 자신이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승리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냐는 전적으 로 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성품은 역경을 이 겨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여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트렌트교회 담임목사: 이재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 Tel. (718)662-6611 142-01 38th Ave. Flushing NY 11354	뉴욕트렌트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hseme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57-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75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여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금요찬양: 오후 05:30 성경윤락: 오전 10:00 화, 토 Tel.(212)342-2584, www.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화선교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신앙영양: 오후 12:30 주일학교고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Tel.(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10:30 2부 오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화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 Ave., Hicksville, NY. 11801	어린이 개척 교회 담임목사: 유승래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Tel. (845)848-2013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여)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김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신 찬양축제

동부개혁장로교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 찬양축제가 11월 17일(수) 오후 8시 퀸즈장로교회당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매년 장학금 후원행사로 개최됐다.

▲문의: (718)463-7163

한기부(뉴욕) 대표회장 취임예배

사)한국기독교부흥협회의회(뉴욕) 대표회장 김경열 목사 취임예배가 11월 7일(주일) 오후 2시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에서 열린다. 한국 이사장 송일현 목사(보라성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한다. 송일현 목사는 10일(수) 오전 10시 “말씀과 비유” 세미나를 인도한다. 장소는 동일하다.

▲문의: (917)963-9356, 678-2207

퀸즈장로교회 가을 새벽부흥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가을 새벽부흥회가 11월 8월(월)부터 13일(토)까지 새벽 5시45분부터 열린다. 강사는 담임 김성국 목사이며 주제는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이다. 한편 퀸즈장로교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정지했던 차량 픽업운행을 재개했다.

▲문의: (718)886-4040

회장후보 마바울 목사 후보사퇴

뉴욕목사회...5개 항목 사퇴의 변 밝혀

뉴욕목사회(회장 김진화 목사) 제 50회기 회장으로 입후보 했던 마바울 목사(현 부회장)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사퇴를 했다.

오전 11시30분 거성식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바울 목사는 “그동안 저를 아끼고 지원해주셨던 회원 목사님들과 저를 부회장으로 뽑아주신 목사님께 저의 거취를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돼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마바울 목사(퀸즈성령강림교회 담임)는 부회장으로서 화평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목사회 파행을 막지 못했다며 5개 항목으로 사퇴의 변을 밝혔다.

1)목사회는 친목단체로 단체장이 된다는 것이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비난의 대상이 된 목사회 회장이 돼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2)모범에도 없는 선관위 세칙을 만들고 선관위 본연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투표를 기대할 수 없다.

3)친목단체에 걸맞지 않는 7천 달러(회장 4천달러, 부회장 3천달러)라는 금액을 내야 한다.

4)한 달이 넘는 선거기간으로 인해 후보자에게 심한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주고 있다.

5)모범에 없는 세칙을 만들

고 긴급임시총회를 통해 확정지으려 할 때 임시총회와 총회의 논쟁을 막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 회장 후보를 사퇴한다”며 “지난 1년간 부회장으로 섬길 수 있어 감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목사회 선관위(위원장 김용익 목사)는 10월 28일 후보등록을 마감했으며 회장후보 마바울 목사, 부회장 후보로 김홍석 목사(뉴욕늘기쁜교회)와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가 등록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마바울 목사에게는 목사안수와 소속교단 관련 보증서류를, 등록장소에서 회장 김진화 목사와 충돌이 있었던 허윤준 목사는 후보탈락을 통보했다.

뉴욕목사회 정기총회는 11월 29일로 예정돼 있으며 그전인 16일 임시총회를 연다고 알려졌다. <유원정 기자>



마바울 목사

“미스바 회개운동으로 뉴욕의 영적기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뉴욕교협.40일 릴레이 “미스바 회개운동” 개최

제48회기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이 첫 사역으로 미스바 회개운동을 개최한다.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미스바 회개운동 집회는 최혁 목사(LA 주안예교회)와 박성규 목사(LA 주님세운교회)를 강사로 열린다.

이에 앞서 뉴욕교협은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40일간 “미스바회개운동” 릴레이 준비기도를 진행하며 회원들의 동참을 부탁했다. 임원들과 준비위원장 박마이클 목사를 중심으로 40일 전체 또는 며칠, 혹은 하루 한 끼 기도회 동참하

겠다는 회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기도 동참자는 11월 2일 현재 658명이 참여했다.

회장 김희복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회개”라며 “이번 회개운동으로 뉴욕의 영적 기류를 새롭게 바꾸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취지문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자세한 문의 및 기도 참여는 교협사무실(718-279-1414)로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후원자의 날” 12월 2일 결정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월례회가 27일 오전 10시 30분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1부 예배 후 2부 회의에서는 사업보고, 회계보고와 매년 연말에 개최했던 ‘후원자의 날’ 행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낮 시간에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일시는 12월 2일(목) 오전 11시, 장소는 퀸즈침례교회로 잠정 결정했다.

회장 유상열 목사는 “단순한 연례적 행사가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후원하는 후원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진행할 수는 없지만 정성어린 선물 등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고 말했다.

1부 예배는 한필상 목사 인도로 기도 김인한 장로, 말씀 박이스라엘 목사, 합심기도(인도 한준희 목사), 축도 이종명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이스라엘 목사는 “사랑은 주는 것”(눅6:3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사랑은 주는 것이며, 거저 받았으며 거저 줘야

하며, 오래 참아야 한다”고 말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기아대책의 사역은 사랑의 결실, 생명의 결실을 맺고 있다. 한 아이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합심기도는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회원을 위해 △결연아동과 후원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폴로비아 김혜정 선교사, 페루 김중원 최은실 선교사, 과테말라 장경순 박윤정 선교사, 코르디부아르 김형구 이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제목으로 진행됐다.

2부 회의는 회장 유상열 목사의 개회기도와 인사 후 사무총장 박진하 목사가 사업보고, 회계보고를 했으며 전희수 목사의 폐회 및 식사 기도로 마쳤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전세계 빈곤국 아동후원을 주 사역으로 하고 있으며 월 30달러로 아동 1명을 후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bread&gospel.org)를 참조하면 된다.

▲후원문의: (917)620-8964 박진하 목사

<유원정 기자>



뉴욕한인장로연합회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민족 선교대회 일정을 발표했다.

2021 다민족 선교대회 11월14일

뉴욕장로연합회 일정 발표, 7개 선교단체 참여

뉴욕한인장로연합회가 오는 11월 14일 제 8차 ‘다민족 선교대회 2021’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저녁 기자회견을 갖고 대회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 주제로 주강사는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원로).

베이사이드 거성 식당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이광모 장로 사회로 박해용 장로의 기도 후 회장 송윤섭 장로가 인사말을 전하고 준비위원장 정권식 장로가 행사계획을 발표했다.

송윤섭 회장은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연례행사인 다민족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올해도 형편이 별로 나아진 않았지만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대회를 치름으로 내년에는 뉴욕교계에 선교 기록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장로는 “회원들이 기도하면서 지난 7월 결정하고 준비해하고 있다”며 “이 대회가 기성세대에만 초점을 맞추던 것에 벗어나 2세들에게 연결되는 대회가 되고 청소년들도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권식 준비위원장은 “팬데믹으로 다민족 교회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 이번 대회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교단체들을 초청해 선교보고행식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다.

11월 14일(주일) 오후 5시부터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유스국악찬양단(뉴저지시한목자교회), 달리다춤미션(뉴욕주찬양교회), 뉴욕실버미션(회장 김재열 목사), 뉴욕장로성가단, 필그림선교무용단, 글로벌처치(박마이클 목사), 뉴욕밀알선교합창단 등이 참여해 찬양과 무용, 영상 등으로 진행한다.

뉴욕장로연합회는 시편133편11절 말씀(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에 의지해 장로들의 신앙성숙과 구제, 선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창립했으며 현재 11회기에 이르렀다. 구성원은 9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교파를 초월해 매월 셋째 주 목요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월례회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1년 가을학기 온라인 강의 일정

8월 23일-10월 17일
DI8530 Biblical Theology of World Mission
(세계선교의 성경신학)

10월 18일-12월 18일
DI8160 Church Planting & Growth
(교회 개척과 성장학)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수련·부흥회 기능…통성기도·실내 식사 안돼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접종 완료자에 예배 인원 제한 없어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한국교회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1일부터 정규예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한다면 수용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수련회 등 행사와 소모임도 방역수칙에 따라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종교시설의 일상회복 전환은 마스크 상시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다.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 운영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구분했다.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예배당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는 인원 제한이 없다.

교회 내부 공간이 분리됐다면 운영 기준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가령 대예배당에선 미접종자와 접종자가 50% 인원에 맞

춰 함께 예배드리고, 소예배당에선 접종완료자만 인원수 상관 없이 예배할 수 있다. 실내 취식이나 통성기도 등은 할 수 없다.

성가대나 찬양팀은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독창만 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인원 제한 없이 합창도 할 수 있다. 성경공부와 구역예배 등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수 있다. 인원은 사적 모임과 같이 적용하고 교회 등 종교시설 안에서만 만날 수 있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 행사도 99명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사나 숙박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설교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방송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이라면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성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회개정신으로 거듭나 거룩성 회복”

종교개혁주일 앞두고 기념강연 “한국교회 새로운 전환기…”

31일 종교개혁주일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진정한 회개로 거듭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감리교신학대 대학원(원장 오성주 교수)이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종교개혁 기념 학술강연회에서 강연자들은 한국교회와 종교개혁의 회개정신으로 전환기를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첫 강의를 맡은 하정완 목이 있는교회 목사는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성(城)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때는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대였다. 종교개혁자들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설교와 사역을 놓지 않은 덕분에 기독교는 세상의 지지를 받았다”며 “종교개혁의

회개 정신으로 당시 교회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것처럼, 한국교회도 진정한 회개로 뉴노멀 시대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철 감신대 교수는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현상을 분석했다. 김 목사는 “회개의 ‘회(悔)’는 뉘우치는 일이고 ‘개(改)’는 고치는 일인데 오늘 한국교회는 ‘회’를 지향하는 영적 훈련이 주를 이루고, ‘개’를 지향하는 훈련은 부족하다”면서 “‘회’와 ‘개’가 통합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교회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행사를 열면 방역수칙 기준은 종교시설이 아니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으로 적용된다. 식사도 일반 ‘식당’ 방역수칙을 따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교행사를 할 때 수요예배나 새벽예배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가능한 만큼 교회가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교회들도 예배 회복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7일을 ‘예배 회복을 위한 총동원 주일’로 정하고 전 성도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교회는 1-3부 예배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4-7부 예배는 미완료자 포함 50% 규모로 예배하기로 했다. 서울 영락교회(김운성 목사)는 6일 전 세대 교인이 참석하는 ‘영락 가족 특별새벽기도회’를 열고 7일 찬양예배 때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이인선 서울 열림교회 목사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도 방역수칙은 잘 지켜야 한다”며 “예배 참석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교회장 김중준 목사)에서도 지난 20일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장총은 “루터와 칼뱅을 비롯한 개혁자들은 복음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중심으로 성경적 교리를 확립했고 성직 교권주의와 세속주의를 철저히 배격했다”며 “오늘날 한국교회도 성장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인본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장총은 또 개교회 중심주의, 분열 및 파벌, 부패와 타락을 바로잡고 공공회성 회복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한장총은 “교회의 공공성이란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더 높은 도덕성으로 떳떳해지며, 자기성찰에 엄격해지고 더 많이 겸손해지자”고 덧붙였다.

사)에서 온라인 모회를 담당하는 케빈 리 목사와 KT융합기술원 AI연구소 배순민 소장은 영상으로 포럼에 참여했다. 두 사람은 메타버스가 다음세대 사역에 도구가 되리라 전망했다.

리 목사는 4년 전부터 새들백교회에서 진행해 온 온라인 사역을 설명하며 “다음세대는 거리가 멀더라도 가치적인 소속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메타버스에서 교회학교와 복음의 활동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배 소장은 “디지털 유목민인 밀레니얼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는 아날로그의 삶과 디지털을 동일하게 본다. 메타버스는 다음세대로 향하는 기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소장은 “메타버스는 소외된 곳, 가지 못하는 곳에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격차로 파생되는 소외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북한 현 상황과 남북관계의 전망’ 제시

제4회 부산극동포럼 개최…태영호 의원 강연

부산극동방송(지사장 성영호)은 2일 오후 7시부터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제4회 부산극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김영오 전 국회의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과 김

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정연훈 극동포럼 중앙회장, 이요섭 부산극동포럼 회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는 평양 출신인 태영호 국회의원이 강사로 나서 ‘북한의 현 상황과 남북관계의 전망’을 제시했다.

연회 5-6개로 광역화…공유교회 도입

기감총회 입법의회, 정회원 1년급에도 선거권 부여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제34회 총회 입법의회가 26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시작했다. 2년 주기로 열리는 입법의회는 감리교단의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는 행사다.

이번 입법의회에서 11년급 이상의 정회원에게 부여하던 선거권을 정회원 1년급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감리교단의 선거권자는 과거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감은 27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제34회 총회 입법의회 2일 차 회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

다. 해당 선거법 개정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상정됐었지만 매번 부결됐었다. 선거권을 확대하는 이유는 유권자 수를 대폭 늘려 선거에 출마한 이의 금권선거 의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다.

기감은 또 현재 12개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산하 연회가 5-6개로 재편하기로 했다. 각 연회 경계와 명칭을 어떻게 할지는 추후에 결정한다. 현재 92만원인 은급 상한액은 8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단 산하 3개 신학대 신학대학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서로 격려하며 예배회복위해 교회가 하나되자

한교총 ‘위드 코로나’ 메시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중현 목사)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에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 돼 일어나자”고 독려했다. 한교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늦은 감이 있지만 교회의 예배회복과 사회의 일상회복 시작으로 반긴다”며 “회원 교단, 교회들과 앞으로도 계속해 감염병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노멀시대 교회, 타인과 연대의식 가져야”

기독교학회 50차 정기학술대회 “정치·사회 부문에도 신앙접목을”

한국기독교학회(회장 왕대일 교수)가 30일 ‘뉴노멀시대, 빛을 만나다’를 주제로 제50차 정기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더 높은 도덕성으로 떳떳해지며, 자기성찰에 엄격해지고 더 많이 겸손해지자”고 덧붙였다.

주제강연을 맡은 마이클 킬리독일 튀빙겐대 교수는 “뉴노멀 시대는 기독교의 진정한 목적을 인식할 수 있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연대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는 코로나19를 통해 단순히 정규예배를 온라인으로 재구성하는 등 상

황에 적응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대인관계와 사회, 정치 분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믿는 신앙을 접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제강연은 킬리 교수 외에도 팡강양(미국 퍼듀대), 조슈아 버만(이스라엘 바일란대), 엘리자베스 살라자르 산자나(칠레 복음주의대), 케빈 정(미국 웨이크포리스트대) 교수 등이 발표했다.

한국기독교학회 산하 14개 학회도 줌을 통해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기독교윤리학회와 한국문화신학회는 코로나로 등장한 ‘온라인(디지털) 교회’에 대해 논의했다. 성석환 장신대

입법의회에서는 이들 법령 외에도 감리교회의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다양한 법조항이 신설되거나 개정됐다. ‘공유 교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공유 교회는 복수의 교회가 예배 처소를 함께 쓰는 것으로, 예배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위해 만들어진다.

연수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본부 구조 개편안도 통과했다. 이 밖에 기감은 교역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성폭력 대책위원회 규모와 구성 등을 담은 세부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입법의회 2일 차 회무는 예정된 시간을 넘겨 밤 10시쯤까지 계속됐으며, 의장을 맡은 이철 감독회장은 10시8분쯤 폐회를 선언했다.

로 작성하고 시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현장 예배와 일상의 회복이 당면한 과제”라며 “자율적인 방역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교인들과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세상의 희망이 되자”고 권면했다.

한교총은 “방역 당국에 백신접종 완료자로 성가대와 찬양팀을 운영하는 것과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해제를 제안했다”며 “모임과 식사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교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한정되지 않는 가상공간은 기존 교회의 권위 및 진정성과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건물’과 ‘교인수’가 한국교회의 성장주의와 번영주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교회는 이런 한국교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사학회는 1348년 파르미 의학부 교수들이 낸 페스트 보고서를 분석하며 현 코로나 시대를 점검했다. 강치원 책임은교회 목사는 “페스트 유행 당시 유럽의 기독교 전문가들은 전염병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해 하나님을 심판의 신으로 생각했다”며 “오늘의 한국교회는 ‘우리와 함께 전염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들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에서 개인적 정치적 견해에 따라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기윤실은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 내년 대선을 위해 공명선거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윤실은 교회와 목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막고, 교회와 목회자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경고장 발송 및 고발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목사가 설교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정 지지 호소하는 건 부적절” 기윤실 성명 발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교회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기윤실은 25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예배 설교 시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목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며 “누구든지 종교기관·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의 한 교회 A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목사는 상고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A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A목사는 지난해 3월 교회 설교에서 ‘특별히 이번엔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다. 기독교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담임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윤실은 “목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 국교회에서 목사의 설교가 교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영산외교인상 수상

기독교학회 50차 정기학술대회 “정치·사회 부문에도 신앙접목을”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88) 목사가 민간외교 및 한미동맹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3회 ‘영산외교인상’을 수상했다.

서울국제포럼(이사장 이홍구)은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시상식을 열고 김 목사에게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영산외교인상은 매년 외교 일선에서 국익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노력한

정부·민간 인사에게 주어진다.

김 목사는 2000년 침례교세계연맹(BWA) 총회장으로 선출돼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로 활동하며 미국 정·관계 인맥을 통해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왔다. 시상식에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반 전 총장은 축사에서 “김 목사는 정부의 손이 닿지 못

한 곳에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국익 증진 발전에 기여했다”면서 “그야말로 민간 외교의 표상”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5000만 민족 모두 다 외교를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살아왔다”면서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분들과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 목사는 상금 전액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 내 한국전 참전용사기념공원에 들어서는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 기부했다.

mission 선교의 창 (181)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선교적 안목으로 본 개인구원과 사회구원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이다. 구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σωτηρια)이다. '소테리아'는 '영혼구원'을 넘어서 전인구원을 뜻하고, 개인구원을 넘어서 사회구원에도 사용된다. 우리는 헬라적인 이원론에 익숙하여 이 둘을 분리하려고 한다. 그래서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별개의 문제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동전의 양면성과도 같은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을 위해 보수와 진보의 시각차가 크다.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교회 선교를 말씀의 선포와 개인의 영혼구원에 집중시켜왔다. 그러나 선교에 대한 전통적인 이 개념은 사회참여(Social action)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반발과 도전을 받아왔다. 사회구원에 관한 쟁점은 20세기 후반기에 에큐메니컬 운동에 의해서 급부상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양 극단의 노선은 로잔대회에서 통합적으로 잘 정리되었다. 아무튼 우리는 흑백논리보다 다른 진영을 판단하기보다 말씀과 교회의 선교역사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1. 보수와 진보의 두 노선

대체로 보수주의 노선에서는 “그리스도적 구원이란 개인영혼의 구원이며 이 구원받은 개인들이 모여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견해이다. 사회개혁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사회전체가 자동적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개혁은 특별히 소명 받은 전문가들이 할 일이고 교회는 다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곳만으로 충분하다는 태도이다. 결과적으로 보수주의는 영

역적 행보만으로는 한계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진보주의 노선은 사회참여로 영향력을 드러냈지만 정작 복음의 순수성과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반 사회단체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2. 구원 사역에 대한 역사적 이해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다.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은 뗄 수 없는 상관관계 속에 있다.
교회는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되 사회변혁을 위해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

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기독교를 사회 밖의 종교로 만들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어왔다. 이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이에 비해 진보주의 노선에서는 개인의 영혼구원을 소홀히 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사회의 죄악을 규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사회정의를 위해 신앙의 행동화를 지나치게 강조했다.

사회구원의 우선론자들은 각 개인이 착해지면 사회가 자동적으로 선해진다는 견해에 대해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사회구조 악은 개인의 합보다 더 큰 힘을 갖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셨다. 주님은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셨다. 정당을 형성하거나 정치인으로서의 생애를 거절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18세기의 웨슬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부흥운동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운동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19세기 미국에서도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선교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복음화 국제회

의를 기점으로 새로운 물줄기를 타게 되었다. 로잔언약의 핵심은 “사람과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니며, 사회행동이 곧 전도는 아니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이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활동은 복음전파의 결과인 동시에 복음전파에 이르게 하는 다리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로잔대회에서는 양극화된 두개의 극단적인 견해를 통합적으로 정리해주었다. 존 스토틀 목사에 의해 주도된 로잔언약은 개인구원을 우선하되 그리스도인의 사회책임을 무겁게 거론함으로써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명료하게 제시해주었다.

3. 칼빈의 사상

칼빈의 정치사상은 16세기 유럽의 정치상황과 무관치 않은데, 국가가 종교에 예속됐던

상인들에 의해 주로 수용돼 독립전쟁에도 깊이 관여했고, 이로 인해 네덜란드는 사실상 칼빈주의 국가가 됐다. 여기서 카이퍼는 ‘영역주권사상’을 통해 정치와 교육 등을 개혁했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다.

4. 라인홀드 니이버(R. Niebuhr) 교수의 생각

미국의 저명한 사상가요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이버(R. Niebuhr)교수(1892.6.21 - 1971.6.1)는 그의 저서 ‘윤리학’에서 참된 기독교는 두 가지 차원의 건전한 조화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차원이며 둘째는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차원이다. 전자는 종교와 신앙, 후자는 윤리와 사회생활을 강조한 것이다. 참기독교는 종교와 윤리, 신앙과 행위, 정신과 물질의 건전한 조화 속에서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40여 년 전에 니이버 교

에 대한 봉사와 현실참여가 무시 된다. 또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모만 생각하면 모든 가치기준을 인간에게만 두기 때문에 인간 외의 어떤 권위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는 신의 권위도 영적세계도 존재할 수 없으며 다만 유물적인 현실세계만을 문제 삼게 된다.

맺음 말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점진적이어야 한다. 손봉호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는 선지자적 비판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한다. 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임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인간의 노력은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아무튼 우리가 유념할 것은 크리스천은 단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몸부림치는 개혁자나 사회봉사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은 불행하게도 창의적 접근지역 등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어둡고 폐쇄된 곳이 너무나 많다. 사람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문제의식 없이 마치 소가 닭 보듯이 세상을 무감각하게 사는 것은 문제가 크다. 우리는 개인구원을 통해 사회변혁을 시도하지만 동시에 불의한 사회를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

jrson007@hanmail.net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⑮ 바울의 제자 디도



강태광 목사
(월드웨어USA대표)

바울에게 디모데 다음으로 유명하고 중요한 제자가 디도(Titus)입니다. 디도는 목회서신 디도서 수신자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소개하면서 디도가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디도서 1:4에는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로 씁니다. 또 고후 8:23에서 바울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리라”라고 소개합니다. 디도는 바울이 사랑하고 귀히 여겼던 하나님의 사 람이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며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스 철학과 시학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바울에 의해 회심했고,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했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예루살렘 공회(행15장)에 참석했습니다(갈2:1-3). 바울이 비록 유대인에 대한 사역을 위해 디모데를 할례 받게 했지

만 기본적으로 이방인 개종자에게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디도에게 할례를 역지로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갈2:3-5).

바울은 디도를 신뢰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떠날 때 디도를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당시 디도는 고린도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

로 보입니다(고후2:12-13).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마친 이후 디도는 북쪽으로 가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바울을 만납니다. 거기서 바울의 디도의 성공적 사역(고후7:6-15)을 매우 기뻐하며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디도는 이번에는 여러 동행자와 함께 고린도후서를 전달합니다. 바울은 후에

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섬 감독으로 임명(딤후1:5)하고 자신이 못다한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한 뒤 그레데 섬을 떠납니다. ‘황금의 입’이라 불리는 콘스탄티노폴의 감독 요한 크리소스토스는 이것이 바울이 디도를 크게 신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디도는 신

에게 아테마나 혹은 두키고를 보내어 니고볼리로 오라고 합니다(딤후3:12). 이후 디도는 달마티아로 떠나게 되는데(딤후4:10), 이후 디도는 나타나지 않는데, 디도의 무덤이 그레데에 있고 디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섬은 헬라 문화권에서 유명한 섬입니다. 그레데 섬은 지중해에서 시실리아, 사르디니아, 구브로 다음으로 네 번째(혹, 다섯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레데는 크레타 문명(미노스 문명 혹은 미노아스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한동안 미노아스 문명은 호메로스의 대서사시에 등장하는 전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마마마한 크노소스 궁전이 발굴되면서 전설이 아닌 그레데(미노아스)

그리고 27장에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의 일행이 폭풍을 피하여 그레데 해안선에 미항과 리시아 등의 항구를 지납니다. 이 외에는 그레데가 성경에서 언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약 외경인 마카비 1서(천주교와 동방정교는 정경으로 인정)에서 그레데 사람들이 유대인을 핍박했다고 전합니다.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바울도 디도서1장 12절에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라고 그레데 사람들을 악평합니다.

이는 그레데 출신 철학자, 시인, 예언자인 에피메니데스(Epimenides)의 시의 한 구절입니다. 그는 바울이 아테네교에서 인용했던 “우리는 그의 소생(Offspring)이라”(행 17:28)라는 시의 원저자이기도 합니다. 에피메니데스는 방자했던 그레데 사람들을 풍자한 시를 남긴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폴리비우스(Polybius)도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BC 2세기 역사가(歷史家) 폴리비우스는 ‘그레데인들은 돈을 천성적으로 사랑했고, 돈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전합니다. 이는 디도서 1장 12절 이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을 엄히 책망하여 바른 믿음을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chap1207@hotmail.com

갈등중재, 위기관리, 신실함에 바울이 인정했던 하나님의 사랑
돈을 사랑한 그레데 섬에서 주교로 사역하다 그레데에서 사망

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당시 고린도교회는 디모데의 고린도전서 전달(고전16:10-11)과정과 바울의 방문(고후2:1,5-11)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부탁으로 디도는 중요한 편지(Severe Letter)를 전달하였고(고후7:8), 이에 대한 고린도교회의 반응들을 듣기 위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난 것으

고린도에 있는 디도와 합류한 뒤, 디도를 통해 예루살렘에 성금을 전달하게 합니다. 디도는 갈등 중재, 위기관리 그리고 신실함에 바울이 인정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그의 첫 번째 로마 투옥에서 풀려난 뒤 그레데 섬에 들러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이 바울의 방

괴받은 바울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디도는 믿음의 아들(딤후1:4), 믿음의 형제(고후2:13)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한 사람이나 하나님 위로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고후7:6:13:14). 디도는 이후에 그레데 섬에서 주교로 활동합니다. 그레데에서 사역하는 디도

문명의 실재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그레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출생지로, 제우스의 무덤의 소재지로 유명합니다.

그레데 섬은 신약에만 나타나고, 신약 중에서도 디도서와 사도행전에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참석한 사람들 명단에 그레데 사람들(Cretans)이 나옵니다.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만 이 년 후에(창40:23-41:7)찬384장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바로의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사흘 후 애굽 왕의 생일 잔치날 술 맡은 자는 사면돼 복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된 후에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2년이 아주 긴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2년 동안 요셉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술 맡은 자는 요셉

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잊혔었지만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분의 시간에 그 분의 방법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사49:15).

화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창41:37-57)찬197장

요셉은 30세의 나이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스나트와 결혼하고 풍년 기간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장남은 '므낏세' 차남은 '에브라임'입니다. '므낏세'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을 잊게 하였다'는 의미이며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고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고 누명을 쓰고 감옥

에 갇고 사람에 의해서 잊힘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잣대로는 '형통'(창39:2-3,23)하다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귀한 재료'로 사용해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두 아들의 이름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 하나님의 관점을 아는 자(창45:4-8)찬288장

7년의 긴 흉년에 애굽에만 곡식이 넘쳤습니다. 야곱의 아들 10명(베냐민을 제외한)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이들은 요셉 앞에 섰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 바로 남니다. 그러나 나를 팔았다고 자책하거나 격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으로 관계와 상황을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을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목 고센의 은혜(창46:1-34)찬301장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애굽으로 가려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미 창28:13-15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 70명은 '고센(Gossen)' 땅을 받게 됩니다. '고센'은 '땅 중에 좋은 곳(창47:6)'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가

며, '접근함(approaching)'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창45:5)"란 말이 '고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장정만 603,550명'으로 번성시키실 인구 베이터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접근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 험악한 세월을 지나(창47:7-10)찬429장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에 비하면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야곱이 자신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훨씬 지위도 높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

로에게 했던 축복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을 고스란히 녹여서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지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나온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세상을 축복하는 성도가 됩니다.

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창50:19-21)찬309장

야곱이 죽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물려왔습니다(창50:15).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 울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창50:19-20).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값진 재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통, 고난과 연단'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

리'라는 아름다운 결과품을 만들어내십니다. 요셉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미래'의 시제로 본다면 오늘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간증거리'를 경험하는 중입니다. 힘을 내서 승리합니다.

교회음악 이야기(2)

윤임상 교수

(월드시션대학교대학원)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을 크게 3가지로 서술할 수 있다. 첫째, 인쇄술의 발명이었다. 종교개혁 직전에 구텐베르크 금속활판 인쇄술이 발명(1440년경)되어 인쇄를 통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이 일을 통해 당시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대한 바른 눈을 뜨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음악이었다. 자유로운 음악을 사용하여 회중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개혁의 당위성을 알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 개혁의 불을 삼시간에 널리 퍼트리게 하는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다. 이처럼 마틴 루터는 음악의 효용성을 이해하고 있었던 개혁자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이전에 개혁자들이 이루지 못한 종교개혁의 대업을 이루게 한 것이다.

이에 필자는 마틴 루터를 신학자가 아닌 음악인으로서 조명해보기 위해 그의 음악교육과정과 예배 음악관을 서술하고 이것으로 정립된 그의 교회음악 철학이 종교개혁과 개신교, 교회음악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또한 서양음악사에 미치게 된 영향을 탐구하려 한다. 그리하여 이것을 통해 오늘날 예배음악을 접목하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루터는 독일 작센안할트 주 아이슬레벤(Eisleben)에서 아버지 한스 루터(Hans Luther)와 어머니 마가렛 지글러(Margarether Ziegler) 사이에 태어났다. 어머니 마가렛 지글러는 당시 수준 있는 가문의 딸로 음악적 소양이 깊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루터는 자연스럽게 음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그가 쓴 "Urban Regius 1535"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어린 시절 나의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짧은 소가곡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의 음악교육과정을 보면 그는 비록 전문 음악학

은 문학사였지만 음악이론과 작곡을 부전공으로 공부하였고, 아울러 후에 루터교회 찬송 작곡가가 된 요하네스 바인멘(Johannes Weinmann, 1477-1542), 작곡가 그로그 라우(Groß Rhau, 1488-1548), 찬송작가 저스투스 요나(Justus Jonas, 1493-1555)와 또 한명의 유명한 작곡가 요하네스 스팅겐베르그(Johannes Spangenberg, 1484-1550) 등과 친분을 쌓게 되어 그가 미래에 자신의 사역을 돕는 음악 동역자들로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가 대학교육을 마치고 법학을 하려던 원래

루터의 음악은 ①성공적인 종교개혁 도구로 사용

②찬양의 본질 회복

③교회음악사와 서양음악사에 큰 공헌

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그의 모든 교육과정 속에 우선순위는 음악을 많이 생각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음악교육 과정

루터의 교육과정 속에 음악교육을 요약 서술해 보도록 한다. 루터는 라틴 학교인 멘스펠드 초등학교(Mansfeld School)를 다녔다. 이때 그의 교육은 주로 읽고, 쓰고, 노래하는 것이 주 교과목이었는데 그는 이 학교에서 노래하는 것을 생활화 하는 첫 음악교육의 장소였다. 이어 라틴성당학교(Latin Cathedral School)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찬트(Individual Chant)를 노래하는 훈련을 많이 쌓게 되었다. 어어 조지엔 학교(Georgen School)에서 당시 프란체스코 영성을 지닌 음악에 깊은 조예를 갖고 있는 귀족 가문인 The Schalbe와 Cotta 집안과 친분을 쌓아가며 루트와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었다. 이때 Cotta 집안 여사가 루터의 노래와 루트 악기를 연주하는 실력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의 나이 18세에 당시 독일에서 최고의 명문 중 하나인 에르푸르트 대학(University of Erfurt)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의 전공

계획을 접고 수도사로서 수학 받기 위해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과 수도원에 입문하여 그동안 쌓아왔던 음악적 소양을 체계화 하고 전문화 하여 자신의 사역 속에 음악을 접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종교개혁 전개과정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전개과정을 보면 95개 조항: 원제목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Disputation on the Power and Efficacy of Indulgences)"을 작성하여 당시 여러 학자들이나 이에 관계된 관련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자는 의도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게 되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퍼트리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교황에 대한 공격 또한 목적이 아니었다. 하지만 2주도 채 안 되어 삼시간에 유럽 전역에 이 조항이 번지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루터 자신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되었던 것이다.

이후 지속되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자 드디어 1520년 9월 21일 로마 교황은 루터를 파문하는 교서를 발표하게 된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센트럴 맨해튼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허지필드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교회음악가 마틴 루터

〈14면에서 계속〉

그러자 그 해 12월 10일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서 루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파문서를 불태워 버린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루터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 피난의 생활이 이어지게 되었고 1521년 발트부르크(Wartburg) 성에 피신하면서 그곳에서 여러 글을 쓰게 되었고 특히 신앙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음악으로 개혁의 불 지펴

이후 루터의 음악이 개혁의 불을 지피는데 사용되기 시작한다. 1523년 벨치움에 있는 엔트워프 수도원(Monastery Antwerp in Belgium)의 수도사 하인리히 뵈츠(Heinrich Voes)와 요한 에쉬(Johann Esch)가 화형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루터란 최초의 순교자들로 기록되고 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개혁에 음악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루터가 쓴 최초의 찬송인 "Ein Neues Lied Wir heben an(a new song we are raising)" 새로운 찬양이 시작되고 있다"가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음악을 사용하여 개혁에 불을 크게 지피는 역활의 시작이 되었고, 로마 교황청의 타락을 음악을 통해 저항하며 온 유럽 사람들에게 알리고, 순교자들을 추모하며 모든 개혁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의미를 담은 찬양의 시작이 된 것이다.

루터는 중세교회 지도자들이 예배에서 회중들이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한 오류를 바로 잡으려고 예배에서 회중들이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는 찬송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1524년 요한 발터(Johann Walter)의 도움으로 23곡의 비텐베르크 성가집을 출간했는데 이것이 개신교 역사에 있어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찬송집이다. 이어 같은 해에 8편의 찬송집(Erlich Christlich Lieder)을 만들었고 1529년 영적 찬송가(Enchiridion geistlicher Gesenge), 1533년 1545년에 각각 영가집(Geistliche Lieder)을 만들게 되었다. 이어 독일의 회중찬송인 코랄(Choral) 장르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안에 우리가 종교개혁

역가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Einfeste Burgist unser Gott so)”가 담겨있다. 이 곡은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세속 멜로디를 사용하였고 가사는 시편 46편 1-2절을 기조로 해서 만들게 되었다. 이 곡을 만들게 된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정설은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동역자인 레온하드 카이저(Leonhard Kaiser)의 순교를 추모하며 결백성과 정당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루터 음악의 특징

루터의 음악적 특징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는 한 음표에 한 음절씩 가사를 붙였다(Syllabic). 리듬의 생동력(rhythmic vitality)을 가하게 하였다. 라틴 찬송이나 찬트(Latin Hymns and Chants), 대중적 세속 노래들(Popular secular songs) 그리고 새롭게 작곡해서(New composition) 다양한 자료들을 합창(Chorale)에 접목시켜 대중들에게 친숙한 음악으로 다가가게 되었다.

또한 기악음악을 적극적으로

프이는 그의 찬송관은 가사에 대한 민감함이다. "Die noten machen den text lebendig" 가사가 살아 생동력있게 음악을 만들라" 이 이론은 당시 가장 위대한 작곡가 조스켈 데프레(Josquin Des Prez 1440-1521)가 갖고 있던 음악 사상으로 루터는 이 조스켈을 극히 추앙하고 있었다.

조스켈은 르네상스 시기의 작곡가로 르네상스 뿐 아니라 전 시대를 걸쳐 몇 안 되는 위대한 작곡가로 그는 기존의 작곡가들의 관행인 음악을 만들어놓고 가사를 붙이던 형태를 탈피해서 가사에 음악을 붙이는 합창음악을 만들었던 최초의 작곡가로 꼽히고 있다. 루터



마틴 루터

선포하시며 음악의 감정적 능력이 정신적, 영적 침체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그의 음악철학이 개혁의 당위성을 알리고 타락된 교회문화를 바로세우며 비뚤어진 복음의 방향을 곧게 펴는데 음악처럼 더 한 무기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한편 루터 예배학자이며 루터 연구가인 칼 쉘크(Carl F. Schalk, 1929~2021) 교수는 “루터의 음악 철학을 정돈하며 ‘음악은 하나님과 창조와 신물’이라 하였고 또 한명의 유명한 루터 학자인 로빈 리버(Robin A. Leaver, 1939~)교수는 루터의 음악철학을 이야기하며 음악은 사탄의 마귀를 쫓는 무기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고 말하였다.

이야기한다. 한편 루터 자신도 “우리가 복음을 노래한 이후로 우리의 적대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었다. 회중들로 하여금 예배에서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도록 찬송과 회중찬양인 코랄을 만들어 찬양을 보급하였고, 미를 추구하는 일에 너무 집착하던 당시 중세 교회음악의 관행을 바꾸어 교회음악의 본질을 다시 정립하게 하였다.

세 번째는 서양음악사와 개신교 교회음악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루터가 서양음악사에 끼친 영향은 이미 too 대단하다. 독일음악의 아버지요, 바로 이전에 가장 위대한 독일의 작곡가 하인리히 쉬츠(Heinrich Schütz, 1585-1672), 살아생전에 독일 최고의 작곡가로 바흐에게 큰 영향을 준 디트리히 북스테 후데(Dietrich Buxtehude, 1637-1707), 서양음악의 모든 표준이 이 작곡가의 작품에서 시작되어야한다는 만큼 서양음악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작곡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이외에 필릭스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1809-1847),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 등은 루터의 교회음악에 기초를 두고

현대 교회음악에 대한 조언

오늘날 교회음악은 점점 더
흔타쳐져 가는 가운데 코로나
가 이러한 것들을 더 부추겨
그 혼미함이 극에 달해가는 시
대를 살고 있다. 이제는 교회
음악의 기준도 없고, 전통도
희미해져가는 것 같다. 그날
사회의 변화에 따라 무조건 흘
려가고, 한 교회가 그 어떤 것
을 시도하여 좋아 보이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 같다. 이
러한 가운데 종교개혁 504주
년을 맞은 올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대 혼미함 속에 바
르게 펼쳐진 교회음악의 경험
을 바탕으로 현대 교회와 기독교
교인에게 던지고 싶으신 것
들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서술
하고 글을 종결하고자 한다.

첫째, 오늘날 교회음악의 작
용력에 심각하게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나친
내 감정에 치우쳐 찬양을 드리
며 그 안에 만족을 찾으려는
것은 바른 찬양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열심 그것만이 유일한 목
표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찬양의 가사를 잘 점검해야 하고 작곡기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오늘날 찬양 가사는 내가 중심이 된 고백적 찬양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찬양하는 곡들의 가사를 가 가까이 하며 성경의 내용을 인용한 가사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심미주의적 아름다움에 빠져 미를 추구하는 멜로디, 또 자극적인 리듬을 사용하여 순간적인 본능을 건드리는 가벼운 음악들이 되지 않게 해야 하고 또 이런 음악을 잘 구분하여 권장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찬양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이 본질적 찬양요소를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음악 교육에 깊은 신경을 쓰고 교육을 해야 한다.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란 최선이 아니다. 하지만 전통을 무시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지속적인 교회음악교육을 통해 역사의 흐름 속에 변화된 교회음악을 기억하며 자유와 책임의 통합 정신 속에 본질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채, 이 시대의 문화에 맞게 교회음악을 개선하고 바꾸어 가는 것은 안전할 것이다.

iyoon@wmu.edu

현대교회음악은 ①교회음악의 작용력에 깊은 관심 가져야
②찬양가사 잘 점검하고 작곡기법 신경 써야
③찬양의 본질 놓치지 말아야
④교회음악 교육 지속적으로 해야

는 “조스켄만이 음표를 주관하며 그가 원하는 대로 따라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루터는 모든 음악을 수용하는 가운데 가사의 민감함을 갖고 찬송가를 만들게 된 것이다.

루터의 교회음악철학

루터의 교회음악 철학은 그가 쓴 “Peri Tes Mousikes, 음악을 위해-1530년”에 잘 나타나 있다. 몇 가지만 서술하면 음악은 세상을 묶는 힘과 질서를 가져오며, 이 질서는 동시에 “신적인 질서”라고 생각했다. 또한 음악은 사람의 생각, 감각, 마음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음악을 통해 복음을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며 음악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과 개신교, 그리고 서양음악사에 끼친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이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중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다. 종교개혁 초기에는 루터의 음악이 그의 설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이야기한다. 스페인의 수도사 토마스(Thomas Jesu, 1529-1582)는 “루터의 음악이 유럽 루터란 교단을 확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당시 루터의 음악은 장터에서 길거리에서 법원에서 불리고 있었다”라고

이들의 작품을 펼치게 되었다. 이 작곡가들이 쓴 오라토리오, 칸타타, 모뎃 오르간 음악 등은 모두 루터의 교팔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 낸 것이다. 이들의 영향이 결국 바로크 후기부터 서양음악의 중심이 이태리에서 독일로 전환되는 큰 역사적 전환점을 갖게 한 것이다.

독일의 신학자 프리드리히 스멘트(Friedrich Smend)는 “만약 16세기 마틴 루터의 음악적 개혁이 없었다면 이후에 나온 바흐의 음악적 성과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유럽의 모든 개신교 음악은 암흑기로 접어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루터의 서양음악과 개신교 교회음악에 끼친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그룹 예배 및 기도회: 오후 1:0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수요일 밤 8:00 다민족 방음 기도: 매주 목요일 오후 4:00~7:00 Tel. (773) 802-1112 esfc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0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 (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찬양) 오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kington, MA 01748
안다독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 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침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501) 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빙모임: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 (254) 5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의 행사를
선포 하리로다
시편 118:17

Congratulations!

황의영목사 성역 60주년

- 말씀의 신앙화
Serving God First
- 신앙의 생활화
Biblically Applied Life
- 생활의 문화화
Model for Enculturation



황의영 목사

SBM 재단
서울동양장로교회
청주동양장로교회
캄보디아동양장로교회
SBM 국제본부 (USA)
(재) SBM 장학재단
(주) SBM International
SBM Media
SBM Chorale
SBM M.D.L.

황의영목사가 개척하고 섬긴 교회들



교단제1호, 가좌제일교회



LA 미주평안교회



필라델피아중앙교회



SBM